

---

제1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

일시 1957년10월16일(단기4290년) 상오10시35분

---

의사일정

1. 제16회임시회제1차회의록통과
2. 보고사항
3. 단기4290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제3회)수도비(제2회)주택비(제2회)토지구획정리비(제1회)택지조성비(제1회)각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단기4290년도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안건

1. 제16회임시회제1차회의록통과 ... 2面
2. 보고사항 ... 2面
3. 단기4290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제3회)수도비(제2회)주택비(제2회)토지구획정리비(제1회)택지조성비(제1회)각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11面
4. 단기4290년도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2面
5. 시산하인사이동에대한질의의견 ... 50面
6. 청소행정에대한질의의견 ... 78面

---

(10시 35분 개의)

○의장 박명준; 오늘 아침 24인 출석으로서 제16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할려합니다.

먼저 제1차 회의록 낭독이 있겠습니다.

---

## 1. 제16회임시회제1차회의록통과

(간사장 회의록을 낭독함)

○의장 박명준; 회의록 낭독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정태희 의원; 의장 어제 교육위원회 그 안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도무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의장 박명준; 회의록에 누락된 부분은 녹음을 한 것이 있으니 녹음으로 된 것을 모아서 정정하겠다고 합니다.

(의석에서 ○방동석 의원; 본 의원의 발언도 빠져 있습니다.)

○의장 박명준; 그것도 역시 녹음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은 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록은 이것으로서 통과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록에 서명해 주실 의원은 신사회 의원 이기환 의원으로 지명합니다.

이제 제2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간사장의 보고가 있습니다.

---

## 2. 보고사항

○간사장 신용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구입에 관한 건입니다.

10월11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이 제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설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기4290년도 서울특별시 공익전당포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의 건입니다.

10월11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이 제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보전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명준; 다음 보고사항으로서 문학우 의원 보고해 주십시오.

○문학우 의원;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해서 그간 본 사회보전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한 진정서 청원서 결과를 보고해 드 용산구 이촌동 고광석외 288명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를 최종욱 문학우 양의원으로 하여금 답사한 결과 실지 사정과 진정서 내용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취사선택을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채택치 않는 것은 채택치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본 진정서의 내용이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비료공장을 철거해 달라는 것이고 또 일부 경찰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수입장이 이것이 보건위생상 좋지 않으니 판데로 이동해 달라는 진정내용이 었습니다.

이 비료공장은 현재 판데로 이동을 한다고 하면 약 67억의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해서 악취를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금 회사에다가 연락을 취했다 역시 관할경찰서에다 긴급한 연락을 해서 그 근방에 악취가 발생않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입장은 여이도 공항의 가교가 완성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판데로 지금 이동을 하겠끔 관할서에서 물색 중에 있기 때문에 본건은 그러한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집행부에 이송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농동 468번지 강인우외 77인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인데……. 흥능을 발원으로해서 지금 전농동을 흐르고 있는 개천이 현재 국고보조로서 석축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원간 이 주변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강제철거를 당하지 않을까 해서…….

이러한 기우심에서 자진철거를 할테니까 대지와 자재를 달라는 진정입니다.

본 건 역시 최인호 문학우 양의원이 심의한 결과 본 진정서를 채택해서 집행부에 이송했습니다.

그 다음 종로구 내자동 이태호외 30인의 진정이올시다.

본 건은 보고사항시간에서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목정동 장충동 난민정착위원회 대표 김용흡외 189명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싶이 목정국민학교 기지에 소재하고 있는 판자집 천막집인데……. 지난번 진정인들이 제출한 진정서를 시의회에서 집행부로 이송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진정서가 들어오기를 목정국민학교의 기지를 거기에다가 책정을 하지 말고 장충단공원으로 이송을 시켜주고 현재의 목정국민학교 기지에다가는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는 후생 아파-트를 저달라는 진정이었습니다.

이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본 지정서를 기각했습니다.

서대문구 노고산동 70번지 이재 外 1인으로부터 제출된 것

입니다…….

본건 역시 자기가 경작하고 있는 사유지를 서울시에서 공  
원유족지로 책정된 것을 잘못 얘기를 해주었는데……. 이것을  
자기네들이 경작하게 해달라 하는 진정이였습니다만은…….

도시계획실시에 의한 착오분배였기 때문에 역시 집행부가  
당연히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본 진  
정서를 기각했습니다.

이상 5건을 보고해 드렸습니다.

○의장 박명준; 다음은 김동순 의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순 의원; 시민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대한 희망사항을  
들일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활동사항이 서울 시민전체에 참 충분히 알  
려지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동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몰라서 대단  
히 답답하다. 이것이 신문보도에 서울시의회의 활동사항이 발  
표가 대단히 불성실하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신문기자가 취재를 해서 이것을 편집을 못  
하니까 발표가 안 될 것입니다.

차후로서는 아마 잘 될게요.

하니까 그러면 국회 모양으로 의사일정이라도 그 전날 발  
표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개최한다고 서울 시청앞에서 조그  
마한 종이조각밖에 부이면 어떠냐? 역시 그럴 뜻도 해요.

그래서 의사일정을 그 전 국회모양으로 그야말로 발표를  
해준다면 자기에 용건과 관련되는 안건이 있을때에는 나와서  
방청을 하겠다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신문사측에서는…….

저는 그렇지 않아도 신문사측에서 얻어맞은 이 사람이 재

언을 앓아주겠습니다만은 신문지상으로 더 많이 발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야말로 우리가 참 매일 보고 있습니다만은…….

기자 양반들 열심히 의회 진행하는데 나와서 참관 못하겠지만……. 가능한한 중요한 안건이 심의될 때에는 집행부나 의회나를 어느 편이라도 치우지않게 의회의 사항을 보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한층 가일층 보도이 사명을 재인식해서 우리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고…….

여러 위원장님께서 원안을 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의사일정이라도 중요한 신문에 냈으면 시민을 위해서 보탬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특히 인테-리 계급에 이러한 말이 많으므로 귀한 시간에 보고합니다.

○정태희 의원; 오늘 아침 이 사람이 어떤 우수한 대학의 교수한 분을 만났는데……. 그 분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이 사람이 들을때에도 대단히 매우 쾌감이 있고 듣는 중에 제일 재미스러운 얘기로서 의회석상에서 보고겸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번에 교육위원회 문화위원회에서 주최해서 문화인들 수상을 해가지고 극력 참 그들에게 매우 재미롭게 해 준 일이 먼저번 몇일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신문에 보도되자 일반 참석해서 본 사람들은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았으니까 재미스럽게 여겼지만은 그 외에 보지못했던 사람들은 그때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아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고 매우 통한이 여겼다고 그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그 좌석은 대학교수들도 여러분 있었고 문화인도 많았는데 시의회가 생겼다고 또 연이어서 교육위원회가 생겼다 그런 다음에 이와같은 소식을 듣고보니 이것이야말로 정말 일할 만한 기관이 생긴것이 아니냐 그와 같이 되어서 박수갈채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내용인 즉 그 문화인들이 표창을 받을때에 자기네들이 차한잔이라도 대접을 하면서 내가 오늘날까지 몇십년 동안이라든지 얼마동안 이와 같이 예술계라든지 문학계라든지 이와같이 내게 대해서 어느 누가 어느 편으로도 찬성해주는 사람도 없고 가상도 여겨주는 사람이 없느냐 그날 문화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자작으로 선발적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아무개는 오늘날까지 수십년동안 예술계에서 이만치 활동해서 우리 문예계에 대단한 업적을 나타냈다. 그래서 자기 자작투표를 해가지고 이와 같이 훌륭하게 예술인에게 표창을 했으니 매우 기쁜 일이니 이것이야말로 자발적으로 청청백백하게 어떠한 무슨 대접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운동을 한다든지 그와같은 혼잡한 방식없이 한 것을 보니 이제야말로 예술계에 교육계에 과연 눈을 뜨고 볼만큼 되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매우 호감을 갖었습니다만 하는 그와 같은 얘기를 이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시의회가 잘했다든지 이런 것을 듣는 것보다도 과연 지식계의 정도가 상당한 교수의 지위에 있는 그 사람이든지 그 분들이 이제부터는 우리 시의회와 교육위원회에 잘못하는 점도 있어서 어떤 점으로는 단평을 하겠지만은 그러한 점 하나를 착안하고서 매우 우리 방면에 주목을 하고 보는 그러한 활라에 있게 되었다 말씀이에요.

그것을 볼때에 이 사람 자체가 스스로 느낀 점이 많이 있

입니다.

우리로서는 이러한 일이 있을때마다 스스로가 覺錯을 해서 아무조록 일반 서울시내에 있는 160만 시민이라든지 그 중에서도 예술계라든지 교수진이라든지 또는 훌륭한 정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주목을 해서 향심을 가지고 생각할 적마다 우리는 더욱이 분발해서 어떠한 일이든지 일반사람들에게 매우 족한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매우 시의회라든지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칭찬을 했다는 것은 생각할때에 저로서는 혼자 듣기에 너무 기쁨이 있을뿐만 아니라 제가 들으니만큼 여러분께서도 일반 그러한 층에서 이번 일을 보고서 가상타 칭찬을 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같이 듣고져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보고 말씀드립니다.

(「의장」 하는 이있음)

○의장 박명준; 보고입니까?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 오늘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한마디 보고사항에 말씀을 드리고져 합니다.

2월27자로 제8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김경원 의원의 제안으로 마포구에 있는 선릉공사 예산이 허위예산이다 이런 말씀을 해서 공사가 허위예산이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다 조사해야겠다고 해서 조사단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에 박수형 의원의 제안으로 이효성씨에 대한 조사문제는 보고를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조사단이 되시는 분이 이것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는데 있어서 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을 알고 해나가시는 것이 좋을까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박명준; 그러면 보고사항은 또 없습니까? 없으면 보고사항은 이로서 끝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제3항 「단기4290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수도비 토지구획정리비 택지조성비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이요」 하는 이있음)

○의장 박명준; 김수길 의원

○김수길 의원; 예산관계에 의당히 내무국장이 참석해야 될 텐데 지금 간사에게 말을 들으니까 다른데 불일이 있어서 못 나온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합니다만은 여러 의원 선배께 부탁코저하는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한 바 있으니까 본 회의에서 가결된 예산안을 검토하셔가지고 토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하는 이있음)

○具喆會 의원; 자꾸 집행부에 듣기싫은 얘기지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시정운영의 재정상 중요한 지장을 초래해서 이렇게 계획변경을 하지 않으면 아니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서 이리이러해서 이리이러한 중대한 계획변경을 하지 않으면 아니되겠다는 이 설명조차 없이 이런 변경 예산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심의하는 이 회의장에 집행부의 총예산을 편성하는 책임자들이 하나도 안나왔어요.

마땅히 나와서 계획변경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것 집행부에 사정을 심분 참작해서 우리 의회에서 아무말없이 그냥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해가지고 오늘 본 회

의에 상정한 것입니다만은 오늘까지 시장이하 각 주무 책임자들이 한사람도 여기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번 불성실한 사람들에게 경정예산을 몇백번 심의해서 통과시켜보았자 성과가 없습니다.

나 그 성의를 의심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밟아야하는 절차를 밟지않고 심의한다는 이 마당에서 설명할 사람 하나도 나오지 않는 태도로 보아서 서면상으로 경정예산을 냈지만은 안해주어도 좋다 이런 형식의 태도이지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러니 그 경위는 즉각 집행부 책임자들을 나오라고 해서 그 경유를 표명한 후에 그리고 모든 예산 설명을 해주시도록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웁소」 하는 이있음)

○의장 박명준;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의회가 개회시간부터 반듯이 나와주셔야 하겠는데 이럼으로서 우리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락해가지고 오고가는 시간허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제 연락중에 있으니까 한 5분동안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시의장이 출석해주셔야 이 건 설명을 듣겠으니 5분간 좀 휴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11시 16분 휴회)

(11시 18분 속개)

○의장 박명준; 지금 부의장이 나오셨습니다.

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학우 의원; 될 수 있으면은 집행부에 괴로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무성의하시면 불가불 괴로운 말이 나옵니다.

중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시켜놓고 모시러 가야만 나온다 말이에요.

한두어 사람만 때문에 몇 사람이 기다리고 있느냐 말어요. 그렇게慢하다고 그러면 당신네들 혼자서 할 것이지 무엇 때문에 시의회에 상정시키느냐 말어요.

부의장 한분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부의장 한분 때문에 이것을 심의해야 되느냐? 안됩니다.

내무국장을 즉각 출석 시켜주세요.

○의장 박명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안한 일입니다.

오늘 반듯이 출석하셔야 될 내무국장은 국무원 사무국에서 오늘 긴급 무슨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석한 관계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됨으로 지금 부시장이 나와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부시장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

3. 단기4290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제3회)수도비(제2회)주택비(제2회)토지구획정리비(제1회)택지조성비(제1회)각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의장 신용우; 좀 늦게 나오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제 설명이 조금 만족하지 못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상정을 보게된 단기4290년의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도비 특별회계 제2회 주택비 특별회계 제2회 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제1회 및 택지조성비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그 개요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일반회계와 주택비 특별회계와 그외 3개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내게된 그 이유는 이것이 시책이나 또는 경제사정의 변경에 따른 것이 아니고 오직 국고보조가 조금 느린 것이 있고 또는 내시변경이 있는 것이 있고 이월금의 증가라든가 전차 궤도 포장 수선공사가 다시 늘어오게 되어서 이것을 받아드린 것이고 용지 매각대가 증액된 것이고 택지조성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전입을 책정한 일반차입금에 대한 이자 토목공사의 자재시설의 증가 그러한 등등이 주로 기정사실의 수행에 필요 불가결한 예산조치를 취하는데 불과합니다.

몇가지 특히 말씀드릴 것은 일반회계의 재정난을 다소라도 타계하고자 해서 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에서 1억2천만환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재정형편에 이 여러 점에 있다는 것을 충분참작하시어서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회계별로 추가경정된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기정예산 102억1천5백2십3만3천2백환에 3억6천1백8십6만8천6백환 추가해서 105억7천7백십만1천8백환으로 되었고 수도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6억7백7만7백환에 8천6백만환 추가해서 26억9백3십7만7백환으로 되었으며 주택비 특별회계 기정예산 13억9천1백3십2만6천9백환을 9천1백만1백환을 추가해서 추가예산액을 14억8천2백3십2만7천환으로 되

였습니다.

실지 조성 특별회계 기정예산이 3천2백2십만6백환에 7천3십6만9천2백환을 추가해서 1억2백5십6만9천8백환으로 되었고 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1억8천2십만5천7백환에 1억4천3십3만3천4백환을 추가해서 3억2천5십3만9천1백환으로 되었습니다.

이렇게해서 서울특별시 총예산은 일반회계 105억7백7십1만1천8백환 각 특별회계 예산 50억9천8백6십만8천6백환을 정리하게해서 1백5십6억7백5십만1천4백환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을 좀더 자세하게 말씀하려면 할 수 있으나 너무나 세밀한 것이 되어서 하나씩 따서 그때에 불미한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까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대체적인 설명이 되었으니 략하고 제안설명을 양해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명준; 이제 집행부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대개 여기에 대한 심사보고를 내시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 나와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김주홍;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와 동시에 그 결론을 말씀하겠습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회계별로 간단하게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이번 경정이 제3회입니다.

요구액이 경정추가 3억6천1백만환인데 여기에 있어서 부시장도 설명이 있었으나 세입에 있어서 이월금 보조금 전입금 잡수입 이렇게 항목에 있어서 변동을 가져왔습니다.

이월금에서 1천 보조금에서 3천4백 전입금에서 1억2천 잡손료가 5천5백3십8만환 잡수입에 있어서 추가예산액이 1억3

천4백2십8만5천환으로 그것은 생산품 매각대 9천7백5십7만5천환이 증가되었고 수탁공사비 4천4백7십9만9천환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입을 잡고 있고 세출에 있어서는 의회비 7백여만환 토목비 1억4백4십6만4천환 사회사업비 1천5백여만환이 증 보조금 7백여만환 국세비 3십여만환 시채비 영선비 1천여만환 제지출비 4천8백4십5만8백환 예비비 1억4천백여만환 합해서 3억6천1백8십6만8천6백환이 추가경정 요구가 왔습니다.

물론 이 경정이니만큼 토목비 사회사업비 기타 영선비 이러한 면에 많은 경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세입에 있어서 전입금 1억2천 토지구역 정리비에서 일반회계에 있어서 돈을 ○인 것과 재산매각대 즉 3억4천여만환 역시 팔기로 결정한 재산(보통) 매각대를 심사한 결과(가격심사) 5천5백만환이 특별회계에 속하고 아직 집행해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매각대도 세입에 있어서 증감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서 그것은 성실치 못한 세입을 우리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그외는 거이 인정해서 1억8천6백여만환을 인정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석공장비를 상당히 액수삭감 인정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5분해서 설명하고 보조비에 있어서 경정에 있어서 그 사업이 변동이 되고 비목에 있어서 변동할 것이고 힘으로 그것은 승인했고 보조금에 의하지 않는 사업비의 경정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러 인정하고 대부분은 환원해서 예산서를 통과시키는대로 계속해 달라고 환원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심사한 결과 인정한 것이 1억8천6백여만원 그래서 전차 기정예산 102억1천5백만원에다가 1억8천6백만원이 첨가되었습니다.

한가지 첨가할 것은 소위 수탁공사 경전에서 부탁받고 공사에 있어서 그것을 경전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지출하는 것 인만큼 좀 경하게 생각할지 모르나 예산편성때에 있어서 통과전에 임히 집행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엄격히 규명하고 동시에 집행부에 차후에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증언을 듣고 통과시키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수도비 회계에 있어서 제2차 추가예산안입니다.

그것은 경정은 없고 추가만이 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수도비 세입국고보조가 8천6백만원 세입이 8천6백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택에 대한 수도시설을 하는 관계로 해서 시비는 첨가 못했고 국고보조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회의에서는 무수정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부언해서 말씀한 것은 순국고보조금이라는 관념밑에 예산내에 편성을 보고 그것을 통과시킨 연후에 집행이 되어야 할 터인데 역시 그것도 외인주택 수도시설에 대해서도 8천6백만원을 임의 집행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시 엄격하게 사실을 규명하고 동시에 앞으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언을 듣고 통과시켰습니다.

세째로 주택비회계 그것은 세입에 있어서 시채비 7천5백만

환 역시 주택조합으로서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할당된 것입니다.

7천5백만원 주택비 매각대 1천6백만원 이것으로서 9천1백만원의 추가예산인 것입니다.

세출은 주택조합관계로 나가는 8천여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정하고 추가 예산하고 주택조합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무수정 통과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토지구획 정리비 특별회계 그것 역시 둘째번 나오는 2회재의 추가예산안인 것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을 하는데 따르는 체비지로 따르는 1억4천만원을 예정했고 증감으로 1억3천만원을 보았습니다.

체비지 매각비 2천여만원을 계상함으로서 1억4천여만원의 추가예산인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심사한 결과 세출에 있어서 체비용 가운데서 불필요한 비용을 삭감하면서 그것을 줄여서 예비비로 대체하는 동시에 전입금 특별회계가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고 체비지를 매각하면 어느정도 세입이 있다는 것은 아직 확정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이 사업은 그 토지구획정리를 위한 비용을 정리당하는 사람에게 관련된 부분에 부과시키는 그러한 관계가 있고 해서 그것을 1억2천여만원이라는 거액을 일반회계에 전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일반회계가 확실히 재정적으로 곤란하고 토지구획 정리비가 많이 여유가 남는다면 다시 가상해서 세출에 있어서 전입금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轉替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길이 맥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치를 하고 그대로 통과한 것입니다.



다섯째로 실지조성비 특별회계인데 그것은 매각대 4천만환 이월금 3천만환으로 해서 7천여만환의 세입으로 말미암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1회 추가예산인데 세출에 있어서 택지조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성비가 3천만환 기타로서 편성해서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심사한 결과 세출에 있어서 실지조성 또는 수용비는 좀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안을 내고 동시에 그것이 대단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석26명중 가가 15인 부가 1인 가결되었습니다.

이제 예산 총액에 대해서 확정액을 얘기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 김주홍; 절차에 따라서 이 확정수자…….확정을 해야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것은요 여기 수정안의 제3항에 말이지요 토목비 둘째줄 토목비올시다.

수자가 하나 틀렸습니다.

추가경정요구액이 10억6천9백만환이올시다.

8백만환으로 되어있는데 9자로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둘째번 란에 추가경정요구액이올시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정된 일반회계에 있어서 수정된 총액이 세입세출 다같이 104억백7십2만천8백환으로 되어있습니다.

금회추가액 1억8천6백4십8만8천6백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비 특별회계에 있어서 이번 통과된 것이 추

가경정예산액 요구액과 마찬가지로 26억9천3백7만7백환 세입세출같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가액의 8천6백만환 되었습니다.

세입세출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비 회계 이 주택비 특별회계도 이번 추가요구액과 마찬가지로 세입세출같이 14억8천2백3십2만7천환입니다.

따라서 금회 추가액이 9천백만백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역시 내부수정만 했기 때문에 추가요구액과 마찬가지로 세입세출같이 3억2천5십3만9천백환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가액이 1억4천3천3만3천4백환 되겠습니다.

역시 세입세출 같습니다.

그 다음 택지조성비 특별회계 이 회계로 내부수정만 했기 때문에 추가요구액과 마찬가지로 세입세출같이 1억2백5십6만9천8백환입니다.

따라서 금회 추가액이 7천3십6만9천2백환 되겠습니다.

○의장 박명준; 그것을 삭감해서 그것을 예비비에다 넣습니다.

앞으로 재산조성비로서 확정시키는 것이 좋다고 보아서 여기에 대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조성비는 내무부수정을 해서 요구액 7천만환을 그대로 통과시켜줍니다.

교육위원회 관계는 요 다음에 설명하기로 간단히 끝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끝마쳤습니다.

이제 본 건에 대해서 제2독회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듯한데 질의하실 분이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어떤 방식으로 할른지 말씀해 주세요.

아마 질의가 없는 모양 같습니다.

없으면 축조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의원 말씀해 주세요.

○김준식 의원; 지금 예산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같이 2독회와 축조심의를 생략하고 그대로 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그대로 통과하기로 하겠습니다.

(「중소」 하는 이있음)

(「의장!」 하는 이있음)

○의장 박명준; 이제 여결에서 심의한대로 그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재청이 나왔습니다.

김의원 말씀하세요.

○김규원 의원; 이 우리 의회로서는 예산심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믿은 책임중에 큰 하나올시다.

이것을 구태여……. 의사진행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에도 제2독회라는 것은 생략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이의가 없으면 되는 것이예요」 하는 이있음)

제2독회를 생략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그냥 축조를 해서 그냥 간단히 넘기도록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것 우리 예산안을 갔다가 2독회로 생략했다는 것이 의회로서 신중을 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여러분이 양해하시고서 2독회를 갔다가

축조해서 그냥 간단히 넘기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의장 박명준; 그러면 먼저 나온 동의와 재청이 있었는데  
마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이있음)

김규원 의원 먼저 동의와 재청이 나왔으니 이의가 있으면  
개의해 주시든지 성안을 말씀해 주시요.

○김규원 의원; 이제 동의를 구지 고집하신다면요. 여기에  
회의규칙을 들고 나오겠어요.

할 수 없이……. 제19조에 있습니다.

의회규칙 19조말미에 「제2독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의된  
때에는 그 조례안은 폐기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면 제17조를 보세요」 하는 이있음)

제17조에 「조례안의 의결은 2독회를 거쳐야 한다」 그랬  
는데 「의회의 의결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데 …….

(웃음)

아니에요.

이 조례안이나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이 중대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아까 구지 무엇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독회와 독회사이는 하로를 두어야 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니 구태여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산안을 갖  
다가 말이지요 이것을 2독회를 생략한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  
다.

그러니까 구지 고집하신다면 2독회 생략하는 것을 ○대하고 …… 1독회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나 2독회 생략하는 것은 내가 개의하겠읍니다.

○의장 박명준; 이제 개의회가 들어왔읍니다.

개의회 찬성있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있음)

그러면 개의회는 무효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먼저 동의를 묻겠읍니다.

이제 예산액 확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읍니다.

이제 말씀드린대로 다른 이의 없읍니다.

(「없읍니다」 하는 이있음)

그러면 본건 일로서 완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제3번에 있는 단기429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아직 제안설명 해주실 교육위원회에서 나오지 않았읍니다.

이제 연락이 갔읍니다.

(약 2분간 지체해서 교육위원회 관계관이 출석함)

(장내소연)

○의장 박명준; 조용들 해주세요.

이제 여기 출석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말씀하겠읍니다」 하는 이있음)

네 말씀하세요.

○장을순 의원; 저 관리국장하고 관계과장이 나오셨는데 이저 이 사람 자체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읍니다만은 참 괴롭읍니다.

이렇게 교육위원회 여러분들을 모실려고 하면 대통령 이상가서 오십사오십사 해야하니 어떤 마음먹고 이렇게 되느냐

말이에요.

또 교육위원회 관계된 문제만 상정되면 이렇게 말이 나오니 교육위원회 관계자 무슨 심사인지 모르겠어요.

시의회의 심의받기 싫으면 당신네 단독으로 다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좋지 않우? 이제 와서 오후에 될 줄 알았다하는데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연락관을 파견해주세요.

여러분 단독으로 하는 방향을 국회에다 건의해서 지방예산도 필요없다 이런 정책을 강구해요. 어쨌든 우리 시원들이 떠들고 나오십사해야되니 이게 되겠어요

관리국장 얘기 좀 들으세요. 연락관을 파견해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 이상 앞으로 만나올때에는 서면으로서 의회의 태도를 결정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박명준; 관리국장이 이제 나와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 4. 단기4290년도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교육위원회 관리국장; 실은 매 회의마다 연락원을 대기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찌된 셈인지 연락하는 직원이 저의는 와 있는줄 아는데 자리에 없었습니다.

또 1 2회에 걸친 추가예산이고 양이 많기 때문에 대개 오후에 되리라고 그러한 짐작을 한 것이 잘못입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보아서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공히 기정 예산액이 38억6천백8십7만3천7백환이고 금회의 추가액이 5천9백만5천5백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액이 39억2천8십7만9천2백환입니다.

그리고 대략 추가경정예산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올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세출에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이 추가경정예산은 일부 국고보조와 혹은 교육위원회 자체의 이월금 혹은 기정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어느 정도 장차 소요금액을 추상해가지고 여유가 있는 것을 갖다가 긴급한데에다가 돌린 것이 이 추가경정 예산의 내용입니다.

세출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1관 교육위원회에서 추가된 것이 4백5만7천6백환 3관 교육위원회 행정비에 있어서 1천8백3십8만1백환 4관 국민학교에 있어서 2백4십5만5백환 감이됩니다.

다음 9관에 사회교육비 이 역시 감이 됩니다.

여기서 8백4십3만5천9백환 다음 16관 영선비에 있어서 증이 됩니다.

그 증되는 액수가 4천1백6십4만6천환 그리고 17관 보조금에 있어서 감이 됩니다.

3백만환 18관 제지출금에 있어서 4백3십8만2백환이 증이 됩니다.

다음 19관 예비비에 있어서 4백4십2만8천환이 증이 됩니다.

세입은 5관 보조금에 가서 1천8백8만환 9관 잡수입에 가

서 1천1백5십5만3천5백환 12관 이월금에 가서 2천9백3십7만2천환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입세출 총액이 공히 금회에 추가되는 액수가 5천9백만5천5백환입니다.

자세한 것을 더 말씀하라고 하시면 별도로 말씀올리고 대체로 이상 설명말씀 드립니다.

○의장 박명준; 다음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 김주홍; 교육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위원회 추가경정의 내용은 세입에 있어서 이제 국장께서 논의한 바와같이 보조금 잡수입 이월금 합계 5천9백여만환의 세입증가가 있다고 해서 세출로서 교육위원회 행정비 영선비 기타로서 역시 5천9백여만환을 세출로 잡았습니다.

이것을 심의한 결과 세입에 있어서 이 보조금 잡수입……. 잡수입은 일시차입금에 대한 시에 작년엔 들었던 그 2억5천만환에 대한 이자를 교육위원회의 합계에 물었던 받어드린 이 금액을시다.

그 다음 이월금 이제 부분이 다 건전한 세입이라고 보아서 그대로하고 그 다음 세출에 있어서 아까 이 전자에 어떤 분이 말씀한 바와같이 교육위원회가 발족되어 가지고 너무 그 사업이나 학교에 일이 활발히 되고 사업이 확장되는 것은 좋지만 너무 교육위원회 자체의 행정비 여기에 확장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견지에서 물론 불가피한 것이라고 해서 교육위원회 행정비로 계산했지만은 이것을 엄밀히 검토해서 문교위원회에서 수정한 위에다가 다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수정을 해서 상당한 액수를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교육위원회의 세입이 특히 교육세의 징수 부진으로 말미암아 이러날 것을 가상하고 예비비로 편성을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세출에 있어서 약간의 수정이 있고 그 총액은 5천9백만원 전체를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 시의회가 교육위원회의 교육정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우리 시의회가 심분 이해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왜하는고 하니 이번 소위 학생 장학비라든 그 항목에다가 그 국민학교 5 6학년생에 대한 어떤 실력고사라고 할까 이런것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삭감이 좀 되었습니다.

6학년에 한해서 하고 5학년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혹자는 교육방침에 관한 문제인데 어찌서 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 더러 사적으로 있고 해서 이 자리에서 이것을 해명하는 바는 이것이 문교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고 예결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예산 관항목으로 보아서 교육위원회의 행정비로 되어있습니다.

교육위원회 행정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무슨 국민학교라든지 중등학교비라든지 이런데 관한 것이 아니고 행정비를 절감하는 데에서 이러나는 하나의 현상인데 이것이 만일 문제가 된다면 교육위원회 자체를 이러한 사업을 행정비에다가 계정한다는 이 정신이 또는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여기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점은 우리 의회에서 교육위원회의 교육정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의미에서 여기서 ○○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부탁해 줄 것은 이 보조금 조치입니다.

정부에서 보조금 3백만환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문○면에 보조를 얻었는데 이것을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또 편성전 실지로 주었습니다.

이것은 동대문 수리공사에 대한 보조금이 되어서 그런 줄 압니다만도 이것도 역시 전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고보조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관념이 여기에 계제되었다고 생각해서 엄중히 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이러한 일은 안하겠다는 증언을 들은 후에 통과시킨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언해 두는 바입니다.

○의장 박명준; 이제 심의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사보고가 끝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주세요.

질의가 없으면 제2독회로 드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제2독회로 드려가겠는데……. 말씀해주세요.

(장내소연)

축조심의를 해야 되겠는데 말씀해주세요.

조용해 주세요.

그러면 김규원 의원 본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김규원 의원; 예산결산위원회에 문교위원으로서 출석해서 심의한 결과를 대충 예산결산위원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축조심의를 할까했는데요…….

외람합니다만은…….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져 합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나온 길에 간단이 그 수정된 것만 말씀해 드리겠습니  
다.

수정된 것만……. 종합보고를 했는데……. 아까 계수가 잘  
나오지를 앓았는데……. 이 서면에는 교육위원회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수정  
된……. 세출에서 삭감된 금액이 7백9십만3천5백환입니  
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잠깐 내역을 간단이 말씀드리면 이 의  
장 수당을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했는데 우리 교육위원회  
이 의원 일비조례에 의장 일비를 지불하는 것을 우리가 조례  
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의장에 대한 그 일비를 다시 삽입하  
기 전에는 이것을 우리가 예산상 책정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이번에 5십4만7천5백환 삭감했습니다.

소모품비에서 문탄 연료비등으로 삭감하고 아까 예결위원  
장이 설명하신 학생 장학비 기타 190만환이라는 기타가…….  
또 해명치 못해서 그것을 합쳐서 495만6천환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변공비에서 4천만환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가지를 삭감한 회계가 790만3천5백환이올  
시다.

이것을 삭감해서 결국은 예비비에다가 넣습니다.

○의장 박명준; 그러면 이제 노승환 의원……. 아 예산결산  
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김주홍 의원; 절차에 따라서 총예산액을 확정하겠습니다.

이 교육위원회 특별회계가 역시 추가경정액과 같이 총액

39억2천8십7만9천2백환으로서 세입세출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금회 추가액은 5천9백……. 5천5백5만환으로서 확정이 됩니다.

역시 이것은 세입세출 같습니다.

5천9백만5천5백환 금회 추가액이올시다.

○의장 박명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축조심의 하실려면……. 일로서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의원 말씀하세요.

○김제윤 의원; 엉뚱뚱뚱하는 머리에 질의의 시간을 상실해서 인제 질의는 못하게 되고 이 본안을 성안해가지고 통과시키는 이러한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한마디 얘기를 생각나서 이것은 예산집행상에 교육위원회로하여금 물론 시정감사시에 이것이 나타나질 것으로 믿어지나 모순된 예산집행을 하기 때문에 경고를 주고 나가서 성안을 질려고 합니다.

이 대단이 그 도서관……. 이런데가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서관에 대한 예산집행 사항을 보건데는 한개의 예를 구체적으로 든다면 인쇄비등 혹은 연료비등 이런것은 반듯이 책정된 예산범위내에서 그 당해도서관이면 도서관에다 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다가 의당 예산조치를 해놓고 이것을 그냥 교육위원회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않되요.

예산불가분의 원칙에 위배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 구체적으로 지적을 한다면 이번에 연료비를 문화과의 문화과장으로 하여금 승인해주었다 그 말이에요.

또는 인쇄비같은 것도 인쇄 그 자체를 교육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듣건데는 문화과장도 이것은 문화과장으로서 어떻게 요청할 수가 있습니까? 구매요청을……. 구체적인 서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다만은 도서관에다가 예산으로해서 책정할 하등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예요.

관리국장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느껴져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이 몇푼 되지도 않고 불원 이 예산이 올라올 것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집행부에 대해 가지고 관리국에서는 잘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제반 예로 보아가지고 이만한 예산의 추가경정 이 것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통과시켜주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이 동의를 합니다.

(「재청이요」 하는 이있음)

○의장 박명준; 그러면 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한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자는 동의에는 대해서는 재청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있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올은 것은 이로써 다 되었는데 다시 긴급동의가 여러건 올라왔습니다.

잠깐 긴급동의에 제목을 설명하겠습니다.

1. 미군사병 총기난발 단속에 대한 건의안
2. 일반 택시에 합승 허용에 대한 건의안
3. 시산하 인사이동에 대한 질의의 건
4. 대경제행정 질의의 건
5. 청소행정에 대한 질의의 건
6. 관허요금 인상조치에 대한 질의의 건

7. 호적 병무 세무 사무 이전에 관한 질의의 건

8. 영업비 택시 2부제 실시에 대한 건의안

이 8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을 지금부터 상정시켜서 계속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오후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까?

(「오후에 합시다」 하는 이있음)

(「의사진행이요」 하는 이있음)

○노승환 의원; 방금 오늘의 의사일정은 다 끝나치고 의장께서 긴급동의안으로 제출된 안건이 8건이 있다는 말씀과 그것을 설명하셨습니다만은 전일 본회의석상에서 이원찬 의원께서 우리의 회의일자를 한 사흘동안에 끝마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보자고해서 어저께 본 의원은 이 좌석에 없었습니다만은 듣는바에 의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내일까지 이번 16차 회의일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도 김재광 의원이 누차 보고사항에서 의사진행상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서울특별시 자체에서 나오고 있는 이 조례나 여러 가지 개정안건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이 자리에서 의장께서 말씀하신 8건의 긴급동의를 제출하는 데에 이 사람도 찬성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운영위원회나 사무처에서 각분과위원회 단위로서 제출되어 있는 조례안 개정안이 산적같이 싸여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은 다 제쳐놓고 이 긴급동의안을 먼저 상정한다고 하면은 물론 긴급동의안도 글자 그대로 긴급하니까 제출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160만 시민이 앞으로 이 법을 준수하여 그대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현단계에 이러한 것을 의사일정에 상정한

다고 하는데 있어서 본 의원은 의장께 요청합니다.

이 조례안 개정안이 여러 개월동안 놓여있는 이것을 먼저 내일까지 회의일자를 정해 놓았으니만큼 이 문제를 먼저 상정해서 통과시켜놓은 다음에 여러 의원이 제출하신 긴급동의를 상정해 주시는 것이 우리 의사진행상 마땅히 밝을 순서 절차가 아닌가 하는 데에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상 참고로 말씀드리며 동시에 의장님께 요청의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의장」 하는 이있음)

○의장 박명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어떻게 상정하느냐 하는 것하고 긴급동의안을 어떻게 상정하느냐 하는 순서말씀인데 조례안이 아직 올라와서 거기에 대한 유인물로 준비하지 않고 오늘 의사일정에 올리지 않았는데……. 아마 여러 의원들이 유인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은 다 되었으니까 그 외의 긴급동의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내일 이것을 상정하려고 한 것입니다.

(「의장」 하는 이있음)

○이갑수 의원; 노승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있는 말씀이시고 지당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절차상 순서를 미처 밝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긴급동의를 상정하겠금 된 것이니 이쯤 양해해주시고 우선 오늘 긴급동의를 올라온 것을 대개 볼 것 같으면 상당한 인원수의 서명날인이 되었습니다.

하니까 제안설명도 할 필요없이 인정하시고 이대로 전부를 채택해서 시간있는 대로 결론을 지어다가 한시까지 끝나치고 오후까지 계속해서 오늘 될 수 있는대로 늦드라도 다 처리해

나갈 것 같으면은 내일은 조례안이 輕하게 충분히 나올 문제는 다 해결되리라고 믿어집니다.

하니까 이런 방향으로 할 것을 정식 원의로 결정할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본 의원이 동의를 합니다.

(「재청이요」 하는 이있음)

○김규원 의원; 지금 이갑수 의원이 동의하고 재청을 하셨는데요. 이 동의하고 재청할 성질이 못됩니다.

다음 의제가 되어가지고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들어왔다면 몰라도 의사일정에 올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5인이상으로도다가 여기에 5인이상으로도다가 여기에 제안을 하면 그것은 당연히 오르게 되어서 의사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의장의 집권으로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의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명준; 이제 여러분께서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러면 지금 12시 반이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오전회의는 일로 끝나치고 오늘 긴급동의안을 오후에 상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있음)

그러면 오전시간이 12시 반이니까 오전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노승환 의원; 관계책임자를 2시전에 전부 다 출석시켜야만 이것을 오후회의에서 다 끝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책임자를 2시전에 참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박명준;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일로 오전회의를



끝마치고 오후 2시에 오후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휴회)

(14시 40분 속개)

○의장 박명준;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지금부터 출석의원 24명으로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긴급동의안을 지금부터 상정하겠습니다.

제1 의안은 미군사병총기난발단속에 관한 건의안 김수길 의원의 30명의 제안으로서 본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 김수길 의원 제안설명해 주세요.

○김수길 의원; 본 의원의 30명으로서 서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건에 있어서는 이미 통과된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 선배의원님들에게 제안설명하기 전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한국과 미국과의 친선을 도모하고 지금 이 문제가 국제적인 행정협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문구 하나하나를 신중을 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도리혀 역효과를 낼까 우려해서 이 문구 자체를 신중을 기하고 이것이 여러분께서 찬성해 주신다고 하면 내무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 일임을 해주어 문구에 수정을 가할 용의가 있습니다.

텍커장군에 대해서 한국에 장래 이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고려해 달라는 참고 정도일 것입니다.

항의문은 아닙니다.

제안이유

근항 김천 파주 동두천 서울등지에서 속발하고 있는 미군

병사들의 총기난발사건에 대하여 불행한 계속은 나아가 한미 친선이나 우호를 손상시킬 우려가 큰 것이며 서울특별시 160만 시민의 우려성과 불안감을 초래하오니 별지와 여히 넥커 유엔군총사령관에게 각별한 단속이 있기를 건의합니다.

이러한 제안설명을 여줍니다.

그리고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문

존경하는 텍커 장군이여!

금년 4월 이후 김천 과주 동두천 서울등지에서 계속 발생되고 있는 일부 미군사병들의 한국인간에 대한 폭행 및 발포 살인사건에 대하여 귀관에게 심심한 고려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사건의 속발은 한국국민과 아울러 서울특별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바로서 그 중 과주에서 발생된 집단적인 폭행이나 혹은 학생 무단사살 사건등은 미군에 대하여 평소에 예기치 못한 불상사일 뿐 아니라 특히 송유관에서 놓고있던 세살된 유아를 사살한데 이르러서는 실로 분노를 금할바 없었던 것입니다.

유아가 범죄와 사살의 대상이 된 예는 인류역사상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군법상 규율이 엄격하더라도 지역상의 특수한 사건도 고려될 수 있는 것이며 무지와 빈곤에서 빚어낸 과오나 범행에 일일이 총으로 대항함으로 썼던 반듯이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폭행이나 사살만의 불행한 계속은 나아가 한미친선이나 우호를 손상시킬 우려가 큰 것이며 또한 타국에서 그러한 사건에 대처되는 민중적인 불상사도 우리는 항상 교훈으로 알고

경계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방과 6.25에 맺어진 한미양국과 양국국민 간의 영원한 친선을 위하는 신중한 의도에서 거반 발생한 불상사가 엄단될 것을 깊이 믿어왔고 계속적인 불상사는 장군에게도 심대한 고충을 초래케하여 최근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陳謝를 표하는바 있으니 이에 대처하는 계몽도 실시할 예정이라는바 앞으로 귀관계서 귀관하의 각별한 단속이 있으시기를 자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건의안을 낭독해 드린 가운데에 문구에 다소○의 그릇된 점이 있으면 앞으로 내무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 일임해서 문구를 수정해가지고 그야말로 한미친선에 손색이 없고 지금 진행중인 한미실무자 회의에서도 하등의 자극이 없고 또 정치적으로도 영향이 없는 의미에서 신중을 가해서 하나의 우리 서울시의회가 서울 160만 시민을 대신하는 의미에서 장래에 고려해 주십사하는 그 진지한 의미가 있습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소」 하는 이있음)

○의장 박명준; 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김제윤 의원 발언이 있습니다.

○김제윤 의원; 동의안에 대해가지고 서명 날인할 시기에 상당히 이 문제가 중요시되고 또 따라서 이 안건을 제안하는 김수길 의원의 「킵포인트」 이면에 있어서도 잘 이해납득을 할 것입니다만은 회의일정과 시간관계로 해서 오늘 상정이 됨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좀 늦어진 감이 없지않어 있는 것입니다만은 김수길 의원 제안자가 서두에 얘기한 것과 같이 30명이 날인되었으니까 통과된 것과 마찬가지로 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있어서 그것 생각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소견같으면 본건자체가 미치는 영향 역시 국제적으로 클뿐外라 어제 그저께 연일 신문지상의 보도되는 바를 볼것 같으면 내무부 장관과 상호간에 이 텍커 장군과 이 문제를 가지고 오고가는 「멧세지」가 서로 교환되는 것으로 보아가지고 이 문제가 중앙으로도 대단히 큰걸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서의 이것이 체결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김수길 의원의 제안설명에 있어서 사실상 한미상호간에 우호적인 좋은 결과를 도모하는 하나의 방안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만이 논의대상으로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에 대해서 찬성날인할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하여금 여기에 찬성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의장 박명준; 노승환 의원 말씀하세요.

○노승환 의원; 김수길 의원께서 제출하신 본 건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신 김제윤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우리 국민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문제이고 아울러 이 문제는 피차간 잘 아는 바와같이 구체적인 문제가 결부되었다고 하는 이 중대시한 문제를 방금 제출하신 김수길 의원께서 좋은 말씀과 또 우리 의회자체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유엔군 총사령관인 「텍커」 장군에게 보내자고 하는 건의안 본 의원 전폭적으로 찬동하는 동시에 시간이라는 것보다 여기대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문자나 자구수정을

한다는 것과 좀더 우리 국민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외국사람을 상대해서 보내는 서신내지 건의인만큼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다 일임해서 운영위원회에다 본건의안을 자구수정 내지 외국총사령관에게 내서도 조금이라도 우리 국민 전체에 인격적으로 손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좀더 심각을 기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은 여러분 찬성하신다면 또 양해를 하신다면 동의를 하고저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건의안에 대한 문구수정이 라든가 전체의 책임은 운영위원회에다 맡겨서 운영위원회에서 시기와 모든 면을 냉철히 검토하신 후에 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전체의 책임을 운영위원회에다 넘기자는 것을 동의코저 합니다.

(「동시에 찬성하면서 몇가지 첨가하겠습니다」 하는 있음)

○의장 박명준; 네 말씀하세요.

○박수형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대찬성합니다만은 이것이 우리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을 떠난 지역까지 포함되었어서 역시 세상사람들이 월권이라고 할까 이런 고로서 비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허니 김수길 의원이 과반수 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제출한 정신만은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아시다싶이 미국에 가계신 양대사께서는 확실히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었습니다만은 미군이 경우에 따라서 총질을 할 수 있다고 말해서 대단히 우리들의 분격을 이르킨 일이 있는데 이런데 착안해서 이것을 고려해달라고 선후책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서울특별시의 범위내에서 제안하도록 해서 운영위원회에 자구수정이라든지 문구수정이라든지 위임하되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금천 포천 동두천 같은 문구만을 빼놓것을 동의자한테 첨가합니다.

(동의자 의석에서 「좋습니다」 함)

자구수정을 하실적에 서울지역에서 언제 어디서 몇건이나 이런 일이 났다는 것을 내용을 정중히 번역을 해서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건의하도록 할 것을 동의자에게 첨가합니다.

(「받았습니다」 하는 이들 있음)

(「반대발언 하겠습니다」 하는 이있음)

○의장 박명준; 반대발언 말씀하세요.

○김동순 의원; 박수형 의원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다소 문면 해석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길 의원이 말씀한 것은 이리이러한 하다는 다른데의 전례를 쓴 것이지 금천이나 서울 이외의 지역에까지 사건이 없다 해달라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이거 그 문구 그다지 구애 안될 것 같습니다.

다른데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서울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텍커」 장군의 주둔지가 서울입니다.

단시일내에 이것으로 보내야 합니다.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사후약방문이 될까 우려됩니다만은 과거의 전례만 표시한 것이지 그 지역을 침범안한 것이니까 괜찮을 줄 압니다.

(「운영위원회에다 일단 이송합시다」 하는 이있음)

네 그렇게 하세요.

○김재광 의원; 본 안건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여러 관계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역시 동의에 찬성을 표하거나 동의에 있어서 건의문의 자구수정 내지는 뭐라고 할까 잘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그와같은 문구수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때에는 이 건의문자체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에 붙은 건의문은 참고로 하고 건의문이 작성을 운영위원회에 일임하도록 이렇게 낙착을 지어서 본건은 만장일치의 통과를 보게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자 의석에서 「그것도 받았읍니다」 함)

자치단체에서 내는 것이 불미스러운 감축이 외부에 나가지 않을 방도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주홍 의원; 이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고 또 여러분의 의견이 있어서 자구수정이 되어서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여기에 한가지 첨부할 것은 이것이 외국군대에 관한 말이기 때문에 역시 신중을 기하자는 그 뜻도 좋습니다만은 그 절차를 밟는데에 있어서 역시 외교적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또 어느 나라나 외교문제 국방문제는 중앙정부의 소관사항이올시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도 당당한 독립국가로서 외교권을 발동하고 있는데 지방의회가 직접 외국군사령관이나 또는 그 대사나 이런 분한테 건의문을 보낸다는 것은 그 자체가 좀 어색한 감이 있고 또 외교상의 예절로 보나 절차나 또는 효과로 보아서 우리 시의회가 직접 이것을 발동하는 것보다는 한번 서울시민의 대변기관인 시의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절차를 밟는데 역시 직접하지 말고 중앙정부를 통해서 또는 국회를 통

해서 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면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동의집에서 받겠습니다」 하는 이있음)

○의장 박명준; 이제 그와 같은 발언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먼저 동의집에서 여러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성안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있음)

그러면 요청이 있었으니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일로서 통과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박수형 의원의 26명으로부터 제출된 일반택시 합승 허가용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수형 의원 제안설명 해주세요.

○박수형 의원; 이 사람이 27명의 동의를 얻어서 본 동의안을 긴급하다고 낸 이유는 이미 유인물로서 각자 의원한테 배부한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 경제적인 자급자족을 못하고 있지만은 수차의 외국 원조로서 국방 기타 모든 면을 의존하고 있는 것은 피차가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5년이후 10년이후 혹은 50년이후 계속해서 우방 미국을 위시해서 UN 각국이 원조해 주리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절실히 논의되고 있는 이 휘발유 문제에 대해서 주로 외국원조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것이 국제정세에 변동에 따라서는 폐지 내지는 삭감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감될 것을 생각해서 그 휘발유만 하드라



도 9월말까지는 우리가 9만드람이나 배당되어 왔든 것입니다.

그 9만드람 중에서 우리 서울특별시에 약 천백50대의 수건하게 우리 한국에 속하고 있는데 이 차량수가 사용하는 휘발유가 2천3백드람이 배당되었었는데 이것이 9월초하루날 부터서는 대폭 삭감되어서 전체적으로 9만드람이나 배당되었던 것이 6만드람으로 삭감되었고 서울시에는 1만2천드람 정도로서 배당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바와같이 휘발유가 부족한 관계로 휘발유값이 천문학적 수자같이 뛰어오르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된 한사람으로서 또는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는 우리 시의회로서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루 속히 조절하고 이것을 대비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견지에서 이 동의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으로서 어떤 방법을 취하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본 의원이 일반택시에 대해서 합승을 허용하자는 것을 집행부 내지는 교통부 당국에다 건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특별시의 1만1천5백대에 가까운 차량에서 영업용 택시는 얼마나 되느냐 할것 같으면 다 아시는 바와같이 약 1천5백대라는 수자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합승을 얼마나 하고 있나 할 것 같으면 2백5십대뿐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0대 합승에 대해서 1,500대라는 택시가 있는데 이 택시는 택시로만 허가할 것이 아니라 합승을 허용하게 된

다면 얼마나 휘발유가 절약되며 또한 우리 시민의 교통비가 절약된다 또한 이 합승을 하기 위해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배경이 좋은 사람들이 대문짝만한 추천서라든지 명함을 가지고 시청 당국에 신청을 해가지고 이권운동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채택이 되므로서 이러한 이권운동도 없어지고 하나의 보편화 하지 않을까 이래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우선 여기에 제안에 대한 주문을 물어 보겠습니다.

현하 서울시내는 합승차량이 250대에 비하여 일반택시는 1,500대나 되는데 시민의 여기에 대한 관심을 살펴보면 경제적인 타산면이나 시간상 절약으로 보나 또는 휘발유 절약상으로 보나 합승택시의 이용률이 점고하고 특히 작년과 같이 국내에서 생산 안되는 휘발유 사정으로 보아서 합승의 권한 내지 제한을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50명이라는 인원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이때까지는 50명의 차량이 필요하든 것을 만일 합승을 허용해서 한 차량에다 세명 내지는 다섯명을 태운다 하면 열대로서 그 50명을 충분히 이용시킬 수 있으며 50번 왔다 갔다 할것 같으면 2,500명을 단시간내에 움직일 수 있으며 그 휘발유도 3배 내지는 4 5배 절약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의 교통비 절약이 되는 것이니 한사람이 택시를 타고 일정한 지역까지 가서 500환 지불하는 것을 네사람이나 다섯사람이 타고 150환 정도 지불하게 되니 시민은 교통비가 절약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합승제도로 이권화 문제……. 합승을 경영케 해주면

이권화를 방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출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첫째는 교통비를 절약하고 교통을 완화하고 휘발유를 절약하고 또한 일반시민의 여론이니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이것을 일반택시에다가 합승을 하도록 이 집행부에 해가지고 집행부로 하여금 교통부에 건의하여 이를 실시케함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의장 박명준; 이제 설명이 있었읍니다.

○김수길 의원; 아까 오전회의에 우리가 여기 긴급동의안건에 관계에는 집행부로 하여금 다 출석해 주시기로 그러한 결의하에서 오후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측에서 단 한분인 부시장님밖에 못나와 계십니다.

또 부시장 역시 고달픈지 낮잠을 주무시고 계세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여기서 떠드느냐 말이에요.

개인의 인신공격 같해서 더 말은 안합니다만은…….

한 분 나오셨는데……. 그 분 역시 낮잠을 자고 계시고 하부의 보조기관은 하나도 나와서 있지 않어요.

도무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서울시민을 위해서 대변하는 그 말을 똑바로 듣고 알아가지고 시민에게 밝혀줄 의무가 있는 집행부측에서 말이에요.

이런 정도로 무성의하다면 보따리 사가지고 집으로 가요…….집행부측의 관계관이 나올때까지 이 회의를 휴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박명준; 발언요청한 순서에 의해서 김경원 의원 말씀

하세요.

○김경원 의원; 이 본건의안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본 의원도 찬동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이 제도를 바꾸었으면 어떤가하는 뜻에서 첨부해서 몇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합승제를 전부 「택시」로 매늘면 어떠한 상태가 이러나느냐?……. 또 따라서 당국에서 허가할 적에 합승이면 합승이라는 칭호가 따로있고 「택시」면 「택시」라는 칭호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합승을 탈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으로서 교통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택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족이 5인이면 5인 6인이면 6인 3인이면 3인이 대절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이 택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승을 만들어노면 이러한 때에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좀 곤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택시의 제도를 없애는 것보다도 이것을 택시를 편승제도 혹은 편승하지 않을때에는 대절제도로 이러한 표시를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휘발유에 대한 절약은 합승이나 마찬가지로의 제도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택시에 있어서는 편승을 할 수도 있고 대절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하고 택시는 동대문이면 동대문 서대문이면 서대문 마포구이면 마포구라든지 이러한 것을 할 것입니다.

만약 서울역에서 편승을 해가지고 동대문이 동대문까지에 요금이 일정하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승이나 마찬가지로의 제도가 나오는 동시에 택시로 대절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택시제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러한 안이 나온 줄 압니다.

전연이 택시를 없애버리고 합승으로 일원화 한다는 것은 어색한 점이 아닌가 이러한 점에서 제안자 박수형 의원께서는 연구를 더하셔서 편승제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금도 마찬가지로 되고 휘발유도 마찬가지로 됩니다.

그러한 안을 생각하시면 편승을 할 수도 있고 대절도 할 수 있다고 보며 요금은 이와 같이 합승과 같이 될 것이고 휘발유도 절약이 되고 교통도 완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박수형 의원께서 연구하시면 좋은 제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어떤 나라든지 택시가 전부 있습니다.

그러면 택시를 가족적으로 탈때에는 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절제도 할 수 있고 편승제도 될 수 있는 이런 점을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을 박수형 의원께서 조금 연구해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명준; 다음에……. 김재순 의원 말씀해주세요.

○김재순 의원; 저는 박수형 의원에게 제안설명에 일부 찬성하는 동시에 몇마디 제 의견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우리가 택시대수로 혹은 합승제도에 의한 배차문제라든지 이 문제는 서울시내의 교통량을 완전히 조사한 후래야 이상적인 배차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상적인 편승제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의 교통량을 이제부터 철저히 조사한다 할지라도……. 경찰국 보안과장의 조사증언에 의한다면 약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1,500대가 돌아된다 편리하다 합니다만은……. 편리하다는 것이 지금 교통의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통불편을 느끼고 있느냐? 심지어 버스 전차 택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차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택시는 여기에서 시발할 적에는 손님이 많이 있습니다만 목적지에서 타가지고 돌아올 때에는 거기에 손님이 집결되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불편하다는 교통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대단히 이상적이에요 대단히 잘된다고 느끼는 바는 금년 봄부터 시청앞을 비롯해서 영등포 혹은 서울역을 비롯해서 청량리 기타 여러 지역 노선을 정하고 여기에 합승제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첫번에 합승제를 실시해가지고 노선을 해가지고 큰 이권이랄도 있다해서 이것을 제창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2 3개월동안 그 업자들이 노선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당한 손해를 보았다는 것도 명실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일반 택시를 전부 합승제로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일부 찬성하는 동시에 일부 저는 반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서울시내의 합승제도는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에 예를 들면은 서울역을 비롯해서 각 노선에 출발하고 있는 그 합승은 지금 다소 수지균형이 마질듯 합니다.

그 실례로 보아서는 차가워서 5분 내지 10분 정차하면 발

차하는 것을 볼적에 어느 정도의 균형이 취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 택시는 전부 합승으로 편입시켜달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교통은 교통대로 불편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현재 합승제를 허가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하여 점차적으로 합승차의 이용을 늘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부 합승을 한다면은 교통이 대단히 불편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해 둡니다.

만일 서울시내에 있는 일반택시는 전부 합승으로 정한다 할 것 같으면 노선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차장에서 서는 지연시간 정차장에서 기다리는 손님의 시간 모든 것을 생각할 적에 대단히 불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그대로하고 교통부에 의해서 점차로 늘인다든지 주린다든지 또 한가지 新구로 개선하는 것이 있으면 新구로 이용을 늘인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수형 의원에 건의안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사는 실속있는 그 티오를 교통에 따라서 수시로 늘일 수 있도록 하실 것이 부합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명준; 다음은 노승환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노승환 의원; 박수형 의원께서 제출하신 일반 택시를 합승화하자고 하는 건설적인 건의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한사람이올시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 의원들에 죄송한 감을 느끼면서 몇마디 말씀 아니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하

니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드리지 않으면 아니되는고하니 본 의원이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의회가 생겨가지고 오늘 會議但數로 본다면은 제16차까지 왔을 이 당시까지 우리 의원 각자가 집행을 상대로 해서 본 안건에 대한 관계 주무국장이나 관계관들이 태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입으로 비난하는 것이 본 의원뿐만 아니라 각자가 그러한 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부인못 할 사실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집행부만이 관계안건에 대해서 이 좌석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난하지 말고 우리 의원 각자가 다시 한 번 更心을 촉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원이 47명 가운데에 과반수에 불과한 이런 인원으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으니 본 안건외에 다른 안건이 이 자리에서 상정되어 가지고 통과되었다고 하면은 일반시민에게 우리가 할 것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 그 문제를 이 자리에 출석한 의원들은 그 내용을 잘 알아서 하나부터 열까지가 이렇게 해결이 되고 이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이 되고 이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였다고 할는지 몰라도 이 자리에 참석치못한 의원들은 물론 이유도 있겠지만 집행부 관계책임자들도 그러한 사정과 그러한 애로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집행부만 나쁘다고 하지말고 우리 의원 47명도 각자 반성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드리게 된 것을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아까 오전회의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긴급동의안이 8건이 제출되어 있는 관계로 오늘 이 문제가 해결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저께 3일동안에 우리가 회의를 하자고 정했다고 하면은 하루 빨리 여기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전반에 걸친 문제는 아니겠지만은 각계각층에서 제출되어있는 것이 많이 있으니만큼 본 의원 개인의 견해로 보아서는 내일 그것을 다 통과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이 긴급동의안을 연의나 질의할때에 한 안건에 대해서 10분 내지 15분 걸린다면 모르지만은 어저께 같이 7시 8시 이 안건을 검토하지 않으면 다 못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본 안건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본안에 대한 것은 우리 소관사무가 아니고 행정부에는 권한이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택시를 합승화하자고 하는 건설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찬성을 하여 견해를 조금 달리해서 김경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건의안에 대한 것은 양 분과위원회에다가 일임해서 하는 것이 가장 건설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며 이런 점을 참작하셔서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속한 시간내에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성안 할까요.

(「성안 하세요」 하는 이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빼고 건설분과회에서 이 문제를 잘 검토해서 집행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관계 행정부에 보낼 수 있는 만전의 태세를 가지도록 건설분과위원회에 넘길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재청이요」 하는 이있음)

(「삼청이요」 하는 이있음)

○의장 박명준; 그러면 건설분과위원회에 넘기자고 하는 동

의에 이의 있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이있음)

○김동순 의원; 말씀하세요.

○김동순 의원; 지금 노의원께서 시간단축이라든가 시간을 절약하자는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건설분과위원회에서 넘긴다고 하는 이것은 경찰관계 허가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운영회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 관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있음)

그러면 아까 김경원 의원이나 김재순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결국 연구자료나 합승하는 지역 합승하는 시간 말하자면 일요일날 같은데 우이동에 간다거나 도봉산에 가는 일반 택시에 있어서는 합승할 수 있다 경찰에서 취체하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 해서 연구 자료로 건설분과나 내무분과에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있음)

○의장 박명준; 본 건에 대해서 다른 이의없으면 통과됩니다.

다음은 김동순 의원외 10명의 제안으로서 시산하 인사이동에 대한 질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동순 의원 제안설명해주세요.

---

## 5. 시산하인사이동에대한질의의건

○김동순 의원; 본 안전에 있어서는 과거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께서 오고가는 말이 계속되고 특히 최근 인사이동에 있어서 想皮的 시찰이나 객관적 시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듣기에는 이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불공정하고 혹은 정실에 흐르는 감이 있지 않은가 하는 감을 가져서 긴급하다해서 이 문제에 대하여 동의안을 냈습니다.

부시장님이 지금 나와 계시나 현재 내무국장께서 所要之事가 있어서 나가신 것 같은데 특히 부시장께서는 내무국장이 안계시디만큼 좀 잘 참고해주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고 지금 노승환 의원께서는 참 대단히 짧은 시간에 여러가지 안전을 혹은 건의…….

혹은 질문을 해야되는 관계로 해서 요령만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再昨日 제가 들었는데 아마 3 4일전에 있던 인사이동을 했는데 성북구청 총무과장으로 있던 사람이 이번에 본청계장으로 들어오게된 인사발령에 있어서 용산구청장과 서대문구청장의 교체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왜 이런 형상이 나타났느냐? 가까운 얘기를 하면 김지원이라는 그 사무관은 과거에 본청에서 문화과장 공보과장 그런 과장직을 지내서 성북구청 총무과장으로 있다가 불과 몇일전에 성북구청에서 성북구청 총무과장으로 옮겨져서 일을 보든 중 금반 본청의 모과에 계장으로 들어왔답니다.

이것을 같은 사무관에서 무슨 주사로 떨어졌다든지 이것이 아니라 같은 그 관 계급에서 말아보는 그 직책이 다른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참 그야말로 구청의 과장이든 본청의 계장이든 같은 사무관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과거에 본청에서 두 개과를 거친 즉 사무면을 따진다면 능숙한 적격자가 고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본인이 사무적 과오 혹은 기타 관리의 위신을 떨어트린 관계라든가 관리의 위신을 손상했다든가 事務率態를 저하시켰다든가 부하감독을 불충분히 했다든가 차라리 권고사직을 시키든가 감봉을 시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과거에 자기가 다리고 있던 그 계장이 구청의 과장으로 나가게 되고 혹은 현재와 같이 근무하는 본청내에 들어와서 자기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 결국은 위로 올라갔고 물론 부덕의 소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인사 이것은 뺨이라든가 정치관계를 고찰해서 무고한 사람 허물없는 사람을 좌천한다면 그야말로 우리 의회가 전체가 목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사를 간섭하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해서 혹은 국고보조도 있습니다만은 서울시 행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집행부에 돈을 써가지고 능률을 올려서 시민의 복지를 많이 주는 방향으로 잡어나간다면 한사람 일꾼이 참 그야말로 10인의 노력을 해서 능률을 나쁠금해야지 인지상정이란 좋은 자리에 가면 열이 나는데 좌천을 하면 맥이 풀려서 열이 안나는 것만은 현실이며 우리가 보고 뚜렷한 사실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고 서대문구청장과 용산구청장의 전근발령된 3 4일후 동일 구청내의 세무직원들이 세무관계로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약속을 당해서 입건중이며 혹은 공판중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용산구청에서 세무관계사고가 나고

서대문에서도 세무관계사고가 났는데 왜 이왕이면 사고가 나지 않는 곳의 구청장을 영 전을 시키든가 사무형편에 있어서 바꾸는데 좀 연구를 하기 인사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지금 부시장님께서 나와 계시는데 그 인사이동에 있어서 절대로 백이나 정치적 관차를 거기 개재시킨 일이 물론 있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있는 것을 없다고 하면 양심의 가책은 본인이 받는 것이요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인사이동에 있어서 대단히 억울한 인사를 함으로서 시행정의 관리로서 그 집행하는 책임 능률면을 저하를 받는다면 우리 시전체가 인사에 있어서 그야말로 공정히 했느냐 공정히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밝혀서 이와같이 답변을 물론 했다고는 그럴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몇몇 의원이 참 그야말로 이렇게 제안한데 대해서 인식해가지고 차후 인사이동에 있어서 이 점을 고려해가지고 한사람도 억울한 인사를 받을 사람이 없게 해주었으면 다행한 일일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럼으로서 본안을 긴급동의안으로 제출하는 바이올시다.

○의장 박명준; 제안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기에 대한 발언순에 의하여 문학우 의원 말씀해 주세요.

○문학우 의원; 의회에서 서울시 인사문제까지 관여하는 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무취급에 대한 간섭이 아니고 실지 우리들이 시의원의 입장에서 시민에게 들은바를 이번 기회에 이것을 반영시켜 놓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몇가지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너나할 것 없이 이 생활고에 허덕이고 취직난에 억매

여 가지고 있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히 이 서울시청의 인사문제만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대단히 이동이 심한 것 같습니다.

풍문이기를 바랍니다만은 서울시에서 자리를 유지하려면 그야말로 享賓도 베풀어야되고 심지어는 수표도 왔다갔다 해야 되고 이렇게 阿漫阿陷하는 이런짓을 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유지하기가 대단히 곤란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좀 자리를 비어놓는 다하더라도 상사에게 갖다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근무성적불량 혹은 성분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 이유로서 좌천되고 면직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인사담당하신 내무국장이나 부시장님은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저하면 전화로서 파괴된 서울시 재건사업이 대단히 중요한데 비추어 토목과장자리가 두달 이상 비어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미국에 가있는 사람을 토목과장으로 임명하느냐? 대한민국내에서는 서울시 건설국 토목과장이 할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 미국에 시찰가 있는 사람을 토목과정을 임명해 가지고 수도 건설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시킨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 묻지않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말이에요.

물론 유능하고 앞으로 서울시 재건을 위하여 전심전력 일을 잘해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그 두달동안에 정체가었던 건설행정이 완전히 복구가 되었느냐 이것도 의심안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 수도과장 문제 인사과장 문제등등을 열거한다고

하면 물론 여러분들이 인사조치할 적에는 거기에 대한 이유와 변명의 자료가 다 있을 것이리라고 봅니다만은 구지 내쫓고 새사람을 가져오는데 공간을 만들어서 사무행정에 대한 지장을 초래시키는 중대한 이유를 알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이 지금 과장급으로 올라가면 좀 과오가 있더라도 그냥 그대로 넘어갈 수가 많지만 임시직원 특히 불상한 것이 임시직원이요 양곡배급도 받지 못하고 불과 한달에 몇푼 안되는 돈을 가지고 아침 9시부터 8시 7시까지 전심전력 다해서 일하고 있는 이 네들이게 조금만 눈에 거슬리고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숙청의 대책이 되든가 또는 면직의 대책이 되든가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을 적에 그냥 그대로 시민을 위한다는 우리의 입장에서 한마디 말씀않드릴 수 없습니다.

좀더 인사조치를 하실려면 근무에 불충실한 사람 대단히 많이 있어요.

날보고 지적하라고 하면 2 3일내에 몇십명 지적하겠어요.

치사스러운 노릇같습니다만 점심시간을 두 시간 세시간 자리를 비워가지고 수다한 시민을 갔다가 몇 시간씩 기다리게 하고 한사람으로 인해서 수십명의 시민이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이러한 것을 정치적 배경 전력 어떠한 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근무에 태만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오늘날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반면 그러한 과실을 범했다고하면 그 이튿날 벌써 발령장 받아가지고 나갔을 것이예요.

이러한 사실이 풍설이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을 시정해줄까? 하는 것을 이 기회에 한마디 말씀드려드립니다.

○의장 박명준; 다음은 이갑수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갑수 의원; 질의시간이니까 서론은 략하고 질의만 하겠

입니다.

내무국장 부시장에게 묻겠는데 지나간 일같습니다마는 과거 용산 전당포 사건관계로서 시민이 세금으로서 이루어진 수백만원의 공금을 착복한 그내들 모구청 학무과장으로도 보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러한 등 적어도 서울시에 30년간이라는 긴 세월을 수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졌다고 자타가 공인한다고 할 수 있는 수도과장같은 분을 토목국 무슨 시험소 소장으로 보낸 일이 있는데 이것이 인사행정상 가장 타당한 일인지 아닌지 하는 것과 전당포에 대한 과장으로 보낸 문제가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하는 것과 밝혀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 수도에 전문적으로 여기에 대한 기술을 풍부히 가지고 있는 분을 토목국 시험소 소장으로 보낸 것이 과연 이것이 인사 조치가 잘된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해명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과거에 과장을 지낸 분을 현재에 계장으로 보낸다고 해도 이것 타당하다고 봅니다.

반듯이 과거에 과장을 했다고 해서 오늘날에 계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마땅히 공무원의 그 사명을 떠나서 행동을 했다든지 하면 파면대상이요 좌천도 몇 단이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치 아니하고 세금을 잘못 받어드렸는데 고만 이달에는 못 받아 드린 까닭으로 인해서 듣건데 영등포구 청장이 어느 과장으로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다든지 온다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영등포구청장은 세금을 잘 받어드려서 과장이 종로구청 징수과장으로 온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아직도



머리에 사라지지 않고 어제 일같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두서너달에 세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구청장을 좌천을 시키고 이렇게 공무원들에 대한 신분이 보장안되고는 이나라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제자리에서 일 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이 영등포구청장이 세금을 어느 정도 부과하고 어느 정도 못 받어드려서 좌천하는 것인지 이러한 점을 좀 아직 확실히 되어있는지 안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든 소문이 아니라 사실같은 얘기를 듣고 있으니 한마디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곰 세가지를 제가 말씀드려서 질문하고 끝머리로 한가지 참고로 질문이 아닙니다만은 질문에 대신해서 참고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잘 받어드렸다고 해서 국장 과장들이 일배주를 먹고 또 못받는다고 해서 밤에 모여 일배주먹고 이거 큰일났습니다.

이것이 세금 잘못받았다고 해서 일배주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정책에 아부가는 것입니다.

제가 1區의 근거를 장악했기 때문에 신상적으로 들은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박명준; 다음 김수형 의원

○김수형 의원; 이번 기회에 서울시행정에 대한 것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단 직입적으로 폭로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계신 시장님이나 부시장께서는 섭섭해 하시지 말고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모 일간신문에는 서울시내에서는 시장이 둘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본 의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인사문제와 관련되었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구청의 지방주사입니다.

이 사람이 일○ 본청의 계장으로 왔습니다.

그야말로 시청 인사행정상에 드문 영전입니다.

지방주사라면 자기가 근무하는 구청내에서 계장이 되었다 해도 대단한 영전입니다.

그런데 낙하산인지 그야말로 시장이 둘이 있어서 그런지 본청계장으로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건설국 모과 모계 현재 계장입니다.

그러면 모 일간신문에 났는데 말은 과연 다른 시장하나는 누구나 마 본인의 신분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고것만은 저 자신 위신이 있기 때문에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짐작하고도 남으리라고 봅니다.

그 진상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원래가 사람을 채용하고 파면하고 하는데 있어서는 적어도 하나의 직제편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사람은 둘이다 말씀이에요.

자리는 하나다 일부러 그 사람을 쓰기위해서 한 계를 갈라다 두 계로 나누었어요.

이거 정신에 이상하다 말이지 편제가 의당히 둘이 있어야 두사람이 채용될터데 이거 채용이 아닙니다.

다른데서 영전되온 사람입니다.

두분 계장급입니다.

자격은 있어요.

자리가 하나가 없으니까 직제도 없는 계장자리를 하나 가외로 만들어 노았읍니다.

이런놈의 인사행정이 어디있다 말이요. 도무지 이거 진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할 의도는 있습니다마는 그 진상답변이 자세치 않으면 다시 나와서 밝힐 용의 있습니다.

○의장 박명준; 다음은 방동석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방동석 의원; 우리 생활이 날로 궁핍하고 사회상이 또한 날로 혼란할수록 이 사람의 거○에 대해서 우리는 심심한 관심을 안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서울특별시 의회의 입장에서 서울특별시 인사행정에 관한한 그 사람이 어디로 가고 누가 어떤 자리에 앉게 되었느냐 하는데 더욱더 관심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시민이 주시하고 있고 또 전체 집행부 관리가 주목을 끌고 있던 차제에 우리가 지난번에 서울특별시 역사상 제1차로 시정감사를 했고 다음 몇달후에 1차 회계 검사를 우리들 손으로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본 의원이 담당을 해서 이러이러한 구청의 이러이러한 과장은 또 이러이러한 계장은 이러이러한 평상직무에 맡은바 소관에 충실했고 또 이러이러한 사람은 소관직무에 태만했고 하는 등을 구체적으로 문자화로 되서 본회의에 보고함과 함께 집행부의 전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의 전말은 인사과 답변에 표현되기를 잘 선처하겠노라하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헌데 그 후에 인사조치가 몇번 있었읍니다만은 우리 의회

의 건의해서 상줄 사람은 상주고 별줄 사람은 별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반응이 없는데 이날까지 미루고 오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 문제가 문제인만큼 그때 일을 상기치 않을 수 없어 몇마디 말씀드립니다.

왜그러냐하면 사람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선악간에 그 일이 잘되었다 선악간에 그 일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의회의 가진바 권능의 일부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회의원의 직권이 발휘되고 한번 발휘되어 사사건건에서 이 사람은 말은바 업무에 충실하였다하면 집행부에서는 가능한한 표창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불충실했다고 규정을 받을 때에는 집행부는 가책없는 벌책이 내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사고방식에 있어서 다소간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시 의장의 권능이 서울시 의회에 표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규정짓고 넘어가야 할진데는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태만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내가 누차 지적하고 시장 부시장은 인사행정에 정실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오늘날까지 어째서 몇차례의 인사행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하등의 성의가 의회에 표시되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예요.

이만한 정도의 가능한 인사조치를 하므로해서 서울시 의회에 가출 수 있는 최대의 성의를 가출 수 있는 최대의 대접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으로서도 보고를 했는 관계로서 이러한 것을 발언하기가 대단히 어색한 감도 있어서 가능한한 발언을 안할려고 합니다마는 개인한테 그러한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의회

전체의 권위에 대한 문제로 체면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같은 사실을 한번 공개해서 집행부가 어지어지한 사실로 해서 여기에 대한 인사조치에 추호도 반응이 없었든가 하는 것을 잠깐 질문합니다.

징수계장 종로건설과장 또 동대문 성북 서대문 이런 것으로 본 의원이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장 아무 계장 아무계로 다녀본 사실 근거를 토대로 해서 그 보고를 했고 그 보고에 의해서 전말서에 분명히 조치하겠노라고 쓴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으며 어떠한 연유로 해서 이것만은 이제까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을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박명준; 이제까지 질의는 많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제 한분만 발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분마저하고 답변듣기로 하겠습니다.

김주홍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김주홍 의원; 여러 의원 동지께서 좋은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또 나와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몇가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가 인사이동을 빈번히 했습니다.

빈번하게 할뿐만아니라 제 인상으로서는 좀 난폭하게 하는 감이 있어요.

그러한 인사이동이라는 것이 사람을 취급하는 것인만큼 신중히 해야되는데 그 어떤 원칙을 가지고 또 어떤 규정을 가지고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론 법규가 있는 줄 압니다.

그 법규를 가지고 그 법규의 어떠한 조항에 비추어서 말하기 어려운 그러한 빈번한 인사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 특별시로서는 독특한 원칙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 말씀해 달라는 그것이 하나입니다.

둘째는 공무원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해도 마음의 안정을 갖지 못하는 곤란한 경제생활을 잘 살어나갈 수 없는 것이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공무원이 참말로 박봉으로 견딜 수 없는 처지에 그것을 견디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또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말미암아 그 신변의 안정을 얻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 노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신변상의 안정을 해주는 방향과 이 빈번한 인사이동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묻고저 합니다.

세째로는 그 공무원은 역시 공무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공무에 숙달하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그 공무를 집행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오는데 여기에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 인사원칙은 과거 왜정시대에 소위 관등제를 폐지하고 지위제를 채용하고 있는줄로 압니다

지위제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그 자리에 어떠한 관정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독특한 자리에 맡은바 공무를 집행하는 데에 대한 숙달할 회사를 노치지 않나 이런 감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빈번한 인사이동이 공무원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가 이것을 미루어 보아서 여기에 대한 것을 잘 되어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기에 한 예를 든다고 하면 과거에 중구청의 모과장이 징수과장인가 그렇게 되는 줄 압니다.

그 분이 성적이 좋다고 해서 용산구인가 구청의 총무과장으로 영전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이 기억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러한 총무과와 징수과 이것이 꼭 다릅니다.

총무과 과장으로서 잘못한다고 해서 징수과장이 되고 징수과장이 잘한다고 총무과장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확실히 이 지위제를 전연 고려치 않는 왜정시대의 소위 관등제의 사상에서 저어오는 인사행정이라고 봅니다.

역시 그와 같은 계장이 그 징수사무에 능한 사람이면 그분을 징수과장으로 시켜주고 또 정 잘못했으면 본청의 과장으로 시켜주고 또는 재무국장을 시키는 것은 모르되 이것을 너무 색다른 방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그 공무에 숙달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서 저는 반대의사를 가지고 묻는 것이올시다.

넷째는 소위 영전 혹은 좌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나마 군정시대에 그 인사관계를 취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에 예를 들면 좌천이라고 하면 징계를 말합니다.

만일에 이제 어떤 과장자리에서 구청장이 급이 좀 낮다고 해서 다른 구청장으로 갈리는 이것을 소위 좌천이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하는 좌천과 선진국가에서 취급하는 좌천은 다릅니다.

좌천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좌천이고 혹은 인사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은 못하게 되어있어요.

본인의 승낙서를 받는 것이올시다.

만일 그 성적이 확실히 나빠서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해서 징계처분 받고 파면시킨다든지 하는 좌천시킬 수 있을지언정 그렇지 않는 그러한 공무원에 대해서 소위 결정적으로 행정적인 결정을 해줄 수 없다고 보아서 이것을 앞으로는 여기 이러한데에 대한 선진국가에서 현재 하는 것과 같이 수락제를 채택할 용의가 없는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 왜정시대에 그 지방민의 인기를 얻었다든가 중대한 과실을 범했을 적에 그 사람을 이리저리 옮기는 것이 소위 좌천제라는 것이 발달이 되었다고 보면 지금은 독립국가올시다.

만일 잘못했으면 중구청에서 잘못했으면 용산구에 가서 좋아할 리 만무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은 벌을 줄지언정 그 사람을 이동시킨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왜정시대에 나타난 버릇을 그대로 본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식민지에서 한 정책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영전 좌천제를 폐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다음 다섯째로는 역시 인사정책으로서 저는 이 시에 중요간부 될 사람을 양성할 그러한 아량을 가지고 일관된 정책을 써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묻는 바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대개 과장 국장을 관리하고 과장 계장 그 밑으로 지금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자주 변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의 중요한 정책이 역시 변동되고 안정성을 잃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을 고려합니다.

즉 그 기한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 못합니다만은……. 하나 적어도 지방의회에서 해나가는 일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좀더 엄연하게 어떠한 인사정책에 대한 잠정적 규약이라도 만들어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간부를 양성하는 그러한 태도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즉 해마다 우리 서울시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공무원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4개월쯤 되어서 각 시내에 대학같은데에서 행정관계를 희망하는 그러한 많은 유망한 청년들이 배출되고 있는데…….여기에서 시험제같은 것을 채택해서 적어도 몇십 명씩이라도 낮은 자리나만 그러한 기회를 준다면 이것이 대단히 앞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고 또 그분네들이 선발되어서 어떠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고 시험제로서 선발되어서 간부의 자리에 앉게 된다면 그야말로 서울시는 행정의 안전을 기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되지 않나해서 그러한 제도를 채택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암만 대학을 나온다 하더라도 유망한 사람이라도 처음에 임시직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중진이나 웃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좋게 보려고 나쁜 버릇이나 배우고 서울시의 중진이 될만한 수양을 하지 않고 소위 힘쓰고 한자리에서 두자리 세

자리 올라가는 관계라면 언제나 우리 서울시는 깨끗해질 날이 없으리라고 보아서 적어도 유망한 학도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어떠한 그러한 기회를 주는 방면으로 나가면 하고 질의하는 바입니다

다섯가지입니다.

○의장 박명준; 이제 질의를 들었습니다.

○박수형 의원; 저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런 문제를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인사과장이 답변해주어도 관계없습니다.

우선 첫째 서울특별시 산하에 지금 현재로서 국가공무원은 몇명이나 되는가?……. 또한 지방공무원은 몇명이나 되는가? 임시직원은 몇명이나 되는가? 또한 시산하 교육위원회 및 중요대학 각급 중고등학교 국민학교 도합 합해서 교육공무원은 얼마나 되는가? 또한 시경찰국 산하 국장이하 중요경찰관수는 몇명이나 되는가? 하는 수자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작년도에 시정감사를 하고 난후에 우리 의회로서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인사는 이냥 두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것을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 시정감사 내지는 회계검사 후에 인사조치에 대해서 좌천은 몇 명이나 하였으며 파면은 얼마나 되었는가 이것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인사문제에 대해서 아까 김주홍 의원 막말로 말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국장 회계과장 같은 분을 과거에 상업학교도 다녀보지 못한 이런 사람을 왕왕히 나와서 회계과장 노릇을 하는데……. 이것은 각자의 역량과 경력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회계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기술이라고 할까?…….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역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적재적소로서 인사조치를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을 그냥 둔다는 것은 인사조치상 대단히 모순이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참작해서 조치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묻는 바입니다.

다음에 서울특별시가 어쨌든 어떠한 시기에 가서 의회제도가 잘되고 명실공히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발전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정적인 사무처리를 능숙히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시장하에 지방공무원으로서 이 행정을 운영해도 무방하겠는데……. 여기에는 국가공무원이 삽입이 되어가고 자치행정에 일상 중앙국가가 간섭을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행정이 잘 안된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국가공무원을 올리겠다는 용의내지는 방안은 없는가?……. 이것을 질문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서울특별시 인사문제에 대한 예규 다시 말하면 과장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적어도 반년이면 반년 일년이면 일년 일정한 규한을 달하면 규정같은 것을 해주어야지 이냥 이 사람들이 안정된 일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암만 역량을 발휘해야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이러한 규정같은 것을 만들어야 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공무를 집행할 수 있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예규같은 것을 만들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특별시 산하에 일반 행정공무원의 그 수준문제가 논의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들인 바와같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시공무원 요 일반 행정공무원 범위내에서 그 학력기

준으로 보아서 대학교 내지는 전문학교를 나온 사람은 얼마나 되며 중학교 나온 사람은 얼마나 되며 그러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요 점으로 참고삼아 내무국장이나 인사과장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질문은 이것으로서 끝나겠습니다.

○의장 박명준; 질문이 너무 많아서 집행부에서 다 잊어버리실 텐데 이상 질문하고 이상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 나오셨습니까?……. 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내무국장 김성화; 좀 구체적이 되어서 다소 답변에 착오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동순 의원께서 김총무 과장의 시 계장 전출문제 이것이 발단은 시정감사에서 金錢의 불미한 점이 발견되어서 그 후에 인사과에서 다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조사한 결과 역시 시정감사의 조사가 틀림없다고 하는 것이 성동구청에 전출된 이후에 이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무관이며 계장이나 구청의 총무과장이나 직제상으로 보아서 손색이 없는 것입니다.

서대문구청장 이동문제인데 이것은 용산에 3년이나 근속하고 있으니 또 여러 가지 관계도 있고 해서 일단 다른 구청으로 전출해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서대문구청장과 서로 교체가 된 것입니다.

문학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토목과장인사 또 수도과장 인사와 인사과장 인사문제 이것은 시장에게 상신하지 않는 내무장관의 단독 인사조처가 되어서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시에서 사전에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더욱이 토목과장은 도미중에 있는 분을 발령하기 때문에 그동안 2개월 이상 공간에 있어서 시에서 빈번히 내무부에 요청했지만은 결국 본인이 돌아왔다 하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임시직원을 빈번히 解免시키드라 이것은 임시직원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징세사무에 종사하는 각 구청장의 징수원 약750명의 직원인데 그달 그달 성적을 조사해서 아주 성적이 불량한 사람은 부득이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실정에 놓여있기 때문에 입니다.

본청에 있어서 최근에 상당한 수를 해면시킨 것은 재정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약 징수직원 외에 500명가량 감원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갑수 의원께서 용산전당포 관계는 시정감사때에 질의결과 이 사람이 여기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영전을 시킨 것이 아니라 전출후에 용산전당포에서 사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다소 인사조치가 늦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도과장 문제는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영등포구청장 문제는 이것은 논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잘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길 의원께서 모 신문지상에 기재된 사실…….

그 사실은 확실합니다.

구청에 있는 직원을 본청계장으로 왜 전출시키느냐 가령 구청의 계장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경력이나 무슨 사무처리에 있어서 특별한 무슨 근면장이나 그런 것으로 보아서 그러한 조치를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전출을 시킨 것입니다.

또한 채용을 위주로 해서 말하자면 사람을 처리하기 위해서 계를 분할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처리하기 위해서 계를 분할한 것이 아니고 아마 橫體的으로 말씀하시지 않지만은 건설국 어떤 과에 사무가 아주 복잡하다고 해서 벌써 수개월 전부터 건설국장으로부터 서면요청이 있어서 그 사무처리를 마침과 동시에 그 계장을 배치한 것입니다.

(의석에서 ○문학우 의원; 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내무국장 김성화; 건설국안에 모계입니다.

(「건설국 모계가 있습니다」 하는 이있음)

건설국 관리계 아닙니까? 방동석 의원께서 시정감사 결과에 명시된 인사조처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전연 왜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마 구체적인 통계수자는 수일후에 시정감사하시면 잘 아실 줄 알지만은 지금도 진행중에 있는 것이고 또 인사조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동대문 징수과장이 성북구청에 전출되었다고 하는 것도 그러한 문제고 요는 방동석 의원께서 시정감사에 나타난 것을……. 집행부에 연락한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 하지만은 저의들은 100%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틀림없이 그러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아까 말씀하신 구청의 건설과 문제인데 각구청 건설관계 전면적인 인사가 불원한 장래에 조처가 있을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김주홍 의원의 질문은 뒤에 말씀드

리겠습니다.

박수형 의원께서 전 공무원의 수자를 말해라 이것은 대략 수자를 알 수는 있지만은 이것은 저의 시관계의 공무원이고 경찰과 교육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이 수자를 지금 조사되는 데로 보고드리게 하겠습니다.

박수형 의원께서도 감사결과 인사조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답변된 것입니다.

전문적 기술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그 외의 방면에 다가 진출을 시킨다 이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사람이 가령 회계면 회계에 또 무슨 기타 사무면 사무해서 최초부터 최후까지 꾸준히 또 계속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계속하다가 어떤 자리에 결원이 생길때에 다른 사무를 탄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 박명준;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질의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부시장도 나와계시고 인사과장도 나와계신데 집행부에 자세한 얘기를 듣고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들을 필요없어요」 하는 이있음)

그러면 여기에 발언 요청한 분이 있는데 김제윤 의원 말씀하세요.

○김제윤 의원; 인사과장이 오늘 이 자리에 인사문제가 상정이 되니 나와 앉어있는 이 실정을 보고 내 한마디 얘기를 해둘려고 합니다.

인사과장은 취임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의사당에 나왔습니다.

인사 한번 받은 일이 없습니다.

인사과장 이 양반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뿐 아니에요.

왕왕 우리 의원간에도 인사과장에 대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사실상 시민을 대변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이 어느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또 산하시청직원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나와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가 시정 행정면에 반영이 되었다 한번 알아볼 때에는 알아보라 말이에요.

자조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한번 경고하지요」 하는 이있음)

사실 문제가 시산하 인사문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국한이 되어있어요.

광범위한 질의 내용도 제제에 여러 의원들께서 많이 있어서 본의원으로 하여금 얘기할 것은 별것 없습니다만은 시산하 여기에 대한 국한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국장 얘기를 듣고는 한마디 얘기안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작년 시정감사때에 노출된 부정으로 말미암아 성북구청에서 성북구청으로 그 옮기기까지의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시정감사의 필요성을 잘 알려주었다는 것으로 하여금 꼭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말이에요.

옮겨가지고 불과 몇달이 안된 오늘날 또 옮긴다고 말이에요.

그래 시정감사한 결과의 필요성을 이랬다저랬다 두번 세번 또 한번 더 옮기면 시정감사의 필요성을 더 인식 잘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에요.

아까 내무국장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성북구청에 있다가 성북구청에 오도록까지는 그 과정이라 말이에요.

사실 옮으냐 그러냐하는 과정이였고 성북구청에서 인사과에서 조사하니까 확인이 되었으므로 인해서 관리과 서무계장



이라는 이러한 자리에다가 영전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인사조치에 있어서 존엄성을 상실해서는 안될 것이  
에요.

그 당시에 아예 성북구청에서 관리과 서무계장은 고사하고  
아까 사실상 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여기에 더한 아주 困  
職으로 보냈든들 우리 시정감사의 필요성을 더한층 인식을  
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말이에요. 이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에 있어서 자기 기분 또 혹은 내  
용에 있어서 상당한 어떠한 배경으로 말미암아 이랬다저랬다  
하는 경솔한 인사……. 이 처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  
은 마땅히 옳지 못한 결과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요번 사실상 21일로부터 전개되는 우리 시정감사에  
여러분이 위임해주신 내무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인사조치의  
그 인사행정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엄밀을 기해가지고 한  
번 해볼 용기가 충분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갖고 있는 것  
입니다.

왜냐하면 전자 국정감사를 실시한 오늘날 몇일 경과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아직 국정감사로서의 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도 국정감사를 한 모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얘기를  
들어보았어요.

사석에서 비공식으로 들어보았습니다만은 서울시 인사행정  
이 그야말로 영점이라 하는 것을 지적한 것을 잘 알고 있어  
요.

이런 것을 참고삼아서 시정감사에 충분히 반영시킬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걸로다가 미루어 보아서 서울시  
전체의 인사행정이면에 있어서는 좀 획기적인 새로운 면을  
강구하지 않는 한 무려 10년에 가까이 한자리에 그대로 방치

해두고 있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참 그야말로 진보도 없고 후퇴도 없이 그 자리에 머물어 있게 되는 그 자체 아까 김주홍 의원이 빈번한 인사조치를 한다 그랬지만 그도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단점과 거기에서 생하는 말 못하는 시시비비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군데에 그냥 오래 고질적으로 두어 두어서 생기는 병폐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본의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가 충분히 말씀드리고자하나 앞으로 21일부터는 이 면에 대해서 시정감사실시가 되니까 그 당시로 미루어서 이 정도로 얘기하는데 문학우 의원이 특히 이런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만은 계장제도가 폐지되었는데 계장제를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나 행정사무에 계장중심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계장의 중요성은 잘 아는데 계장이라는 발령을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자세히 몰라서 물어보아야겠어요.

보통상식으로는 계장제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의문시 됩니다.

겸해서 물어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장 박명준; 다음은 질문이 한분 더 있는데…….

(「답변 들읍시다」 하는 이있음)

답변은 이결로서……. 인사과장도 출석하였고 부시장도 출석하셨는데 이상 답변 들을 필요없다고 말씀이 계셔서 다시 질의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김수길 의원 발언하세요.

○김수길 의원; 오늘 제가 선배 의원님앞에 자주 단상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아까 큼직한 제목으로서 서울시청에는 시장이 둘이 있다는 것으로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내무국장님께서 한번 能牛 能란한 답변으로서 슬적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사실을 사실대로 규명하자는 여기에서 부득이 다시 나왔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지방주사가 모구청에 있는 지방주사가 거기서 계장이 되는 것도 하나의 영전입니다.

그런데 본청의 계장으로 왔다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는 그 사람의 역량이 본청의 계장에 적당하기 때문에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한번 묻고 싶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역량이 있다고 하면 그 역량을 무엇으로 규정을 짓느냐는 것이냐 또 이것이 법적기준이 정해 있느냐 또 과연 그 사람이 본청의 계장을 할만한 공로가 있느냐 있다면 요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사람을 특진시킴으로서 동료……. 같이 오늘날까지 근무했던 동료가 이 사람은 무슨 백인지 몰라도 벼란간 본청계장이 되었다 나는 죽도록 성심성의 공무원의 신분을 다해도 밤낮 이꼴이라…….

이렇게 한탄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료에 대한 사기양양에 대한 것을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소위 이 사람이 하나가 올라오므로

서 서울시민에게 이의 힘이 그만큼 굉장하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냐…….

백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보이는 것인지 도저히 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묻게되면 꼬집어 뜯어서 얘기하는 것이 되고 내무국장의 답변 신통한 답변 없는 것입니다.

들어보나마나……. 사실 그대로 누구누구 이름 어떻게 해서……. 다 얘기 할려고해도 다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는 것만이 능한 것이 아니요 앞으로 인사행정에 있어서 이런 점을 알고도 우리 서울시의회는 대변하는 우리로서는 당신네들에게 아량을 한번 베풀테니 장래에 있어서는 좀더 심각하고 신중한 인사를 해주십사 하는 고려로서 다시 한번 나온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로 알려주십시요.

앞으로 절대로 없으리라고 보고 여러분들에게 좋으시다면 질의종결 동의할까요?

(「의장」 하는 이있음)

○의장 박명준; 이제 김재순 의원 말씀하세요.

○김재순 의원; 서울시행정은 명랑해야하고 유위한 인재를 등용시켜서 공명정대한 사무집행과 서울시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특히 이 인사행정에 있어서 집행부 책임자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내무국장도 성의있는 답변도 했습니다만은 과연 이 답변이 성의있는 답변이냐 진실이냐 허위냐는 우리가 앞으로의 시정감사에서 검토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찬동한다면 종결하겠습니다.

(「종소」 하는 이들 있음)

동의합니다.

○의장 박명준; 본건 일로서 종결하자는 동의와 재청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있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는 김동순 의원의 13명의 제안으로서 대경찰행정질의의 건을 지금에 보니까 경찰에서 만나오신 것 같은데 제안자 김동순 의원 어떻게 하십니까?

(「주권좀 주세요」 하는 이있음)

(「내일 합시다」 하는 이있음)

○김동순 의원; 지금 이 안에 있어서는 기히 시간이 집행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분적으로 보안경찰이나 혹은 그냥 위생경찰에 한한 문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능히 대답도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이것이 7항목입니다만은 여러 의원말씀 들으면 더 첨가되었습니다.

귀하신 몸이 어찌 의회까지 오겠습니까마는 최국장이 서울시경찰국장으로 오신 다음에 한번오신……. 물론 부르지도 않았습니까만은 내일은 나오시도록 보안과장 전해주십시오.

성의가 있으면 나오시도록 전해주시고 과오가 있으면 우리가 시정하자는 것이지 꼬집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질의할 상대가 없으니까 다음으로 밀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하겠습니다」 하는 이있음)

○김제윤 의원; 내일로 우리 회의를 종결하기로 되었지 않습니까? 내일로 종결하게 되었으니까 말이지 이 안건이 상당히 논의가 벌어질거라 시간상에 말예요.

그러니까 내일 보고사항을 간단히 끝내기로 약속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들 있음)

그리고 또 하나는 진행방법도 저거 여러가지 있습니다만은 내일 개의시간도 열시로 꼭 엄수해야겠어요.

(「좋습니다」 하는 이들 있음)

(「한건만 더합니다」 하는 이들 있음)

○의장 박명준; 지금 긴급발언의 요청이 있는데 들었으면 어떻습니까?

(「뭐요」 하는 이들 있음)

(「내일 합니다」 하는 이들 있음)

긴급발언은 내일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안과장이 나오셔서 오래 기다려셨는데 요거 (의사일정표를 가리키며) 한 건만 더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하는 이들 있음)

의사일정을 7항과 6항을 변경하겠습니다.

청소행정에 대한 질의의 건 제안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

## 6. 청소행정에 대한 질의의 건

○신중수 의원; 우리 서울이 정치경제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수도이며 중심도시입니다.

도시행정에 있어서 물론 어느 행정이든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만은 이 위생행정에 대해서 보안과장에게 말씀드려서 최근의 청소문제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시민의 관심이 많고 특히 위생문제이기 때문에 각자가 관심 안 갖는 사람이 없고 큰 도로는 깨끗하게 보니

다만은 이면도로는 더럽고 분로 변소의 뚜껑이 없고 한테 지금 외인이 서울에 많이 와있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고 다니는 것을 볼때에 묵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올시다.

20일전의 일입니다만은 중구 도동에서 청소인부와 동민간에 청소문제로 논쟁이 생겨서 난두극이 벌어져가지고 경찰이 출동해서 말린 예까지 있습니다.

시에 이 국가 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시 단독히 좌우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에 관계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에 대한 인사 위원회를 조직할 용의가 있는가 지금 인사 위원회라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시의 간부들이 위원이 되어서 징계 지방 공무원의 징계사무라든지 기타 전형에 필요한 일이 있을때에는 이 위원들이 회합해서 결의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번 임시회의적에 시 행정연구위원회를 조직하자는 건의가 나왔었고 거기에 가급적이면 이번 회기에 안을 내고 또한 이○에 관하여 수고해 주실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임하는 인사문제에 요청도 해야되겠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끝으로 김주홍 의원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또 범위가 아주 광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내무국장 입장으로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종합해서 시에서 인사 행정하는 것은 난잡하다 너무 빈번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할 수도

없다. 또 전문기술이나 전문지식을 양성시킬수도 없다. 영전은 무엇을 영전이라고 하며 좌천은 무엇을 좌천이라고 하는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시의 직원이라고 하는 것이 시의 관계자만 약 4천명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4천명이라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의원 제씨께서 매일 신문지를 보셔서 아시는 바와같이 시직원들의 비행이 나지않는 날이 없습니다.

시장께서도 굳은 방침을 세우셔서 과오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서할 수 없다 특히 행정을 취급하는 세무서 공무원에게 너무 상상이외의 많은 비행자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처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인사의 영전이 무엇인가 좌천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세칭 영전이고 좌천이고 하니까 아마 다소 불리한 직장으로 가는 것이 좌천이라고 이렇게 세칭하는 모양같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법에는 징계하는 그런 법규가 있어서 징계까지 회부하자면 너무 가혹한 조처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전출을 시켜서 징계에까지 가지 않는 경미한 훈계를 해보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 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무원의 한달동안 성적을 보자 좋은 행정을 해보자 해서 잘못될 때에는 당연히 무슨 좋지못한 조처를 해보자 반면 좋은 결과를 내었을 경우에는 좋은 의미로 무슨 소위 영전이니 하는 영전시켜보자 아까 어느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구 징계과장이 성적이 좋다고 해서 왜 사무관을 시켰느냐 이것은 당연히 그 사람의 오래 근무해서 지방참사로서 사무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도달했고 또 중구와 같이 그런 어려운 지대에서 성적도 좋았고



그리고 이번에 일반에게 시범을 보이자 그런 의미에서 그런 조치도 한 것입니다.

대개 의원제위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보면은 시에서 너무 난잡한 인사도 하지말고 정치의 압력이나 무슨 정실이나 그런 것도 전연하지 말고 가장 공정한 인사를 해달라는 이러한 모양같습니다.

당연히 그런 각도로 가야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런 각도로 갈려는 이전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주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점도 저희들 사무를 담당하는 특히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중을 기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략 이전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해동장이 저의 내무분과위원회에 와서 항의를 말씀한바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긴급동의안으로 올린 것이 올시다.

특히나 실은 분로 두동에 60환을 받아야 정당한 수수료를 받는다고 보겠는데 이것은 지대가 높거나 통행이 불편한데 있는 주민은 처가지 않기 때문에 가서 분노 작업부를 불러다가 사정을 합니다.

담배를 사주거나 매동당 100환을 주지 않으면 응하지 않는 이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오늘 회계과에서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만은 청소비에서 이미 영달된 것이 약 2억 가까이 영달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담당하고 계신 주무과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 이외에도 많이 질문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마는 최근의 청소행정에 대한 제반 활동상황을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을 이것으로서 끝이겠습니다.

○의장 박명준; 문학우 의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학우 의원; 이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의원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들이 다같이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 박병준 보안과장 계실적에도 이 청소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몇가지 주의를 환기시키고 몇가지 말씀을 물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좀 문제가 청소문제가 되어서 여기가 좀 문제가 되어서 여기가 좀 비루하게 나오니다만은 그 똥통 소위 분노를 담어가는 통 이것이 좀 개량해야 되겠습니다.

왜 개량을 하느냐 한지계에 60환이라는 가격을 먹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분량을 적게하겠다. 실지 보안과장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밑을 두들겨가지고 불과 몇번 퍼내면 벌써 한지계 됩니다.

이래가지고 도람통 하나가 다섯지계가 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것이예요.

이것 시비할 수도 없는 것이요 또 더러운 일이니 논의할 수도 없다 말씀이예요.

그래서 분노 수거통을 개량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 한번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가 이 쓰레기를 처가는 것이 아니고 길거리에 뿌리고 다녀요.

이것을 보안과장 아시는지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어서 뿌리고 다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앞으로 개량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아야 되겠습니다.

소위 높은 지대 창신동 현저동 아현동 또 시주변 이런데에

분노차가 잘 안갑니다.

한달 혹은 두달에 한번씩 분노차가 왔다하면 100환 내지 200환을 주어야 됩니다.

안주면 안피요 그래서 이렇게 부당 수수료 수거료를 요구하는 이것을 철저히 시정할 수는 없는가 이것도 이제 한번 물어보아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이것은 직접 시경 보안과 직원이 가서 목격한 바입니다.

동대문밖 창신동에 천막촌 있습니다.

거기에 약 30평되어가는 공동변소를 만들어 노았습니다.

3개월동안 처가지 얹어서 똥이 넘어서 그 높은 지대에서 얹은 지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분 관할소재에 말씀하셨는데 출신구 의원이 조기항 의원과 저하고 되푸리가서 어떠한 사태가 벌어졌느냐 하면 똥 구덩이 하나를 파서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놓고 옮겨놓는 것을 그 직원이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즉시 배차를 갖다가 변경하도록 이것을 오늘 저녁에 수거하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그날 저녁에 수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높은 지대에 차가 잘가지 않는 이유 높은 지대에 사는 사람은 서울시민이 아니냐 역시 그 사람들도 세금을 내는데 변두리에 있는 사람과 높은 지대에 있는 시민에 대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느냐 또 한가지 이 청소원들이 행패 이것 재가 아직도 이것이 철저히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속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의장 박명준; 요망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질의에 대해서 발언요청한 분이 여섯분이 있는데 하시되 간단히 설명을 제외하고 묻는 요건만 해주십시오.

다음은 조기항 의원…….

(「없습니다」 하는 이있음)

그러면 다음은 具喆會 의원 말씀하세요.

○具喆會 의원; 우선 먼저 경찰에 대한 인사를 먼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不眠不休하고 예방 경찰에서 일선에서 노력하는 경찰관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많이 의회에 부르는 것을 삼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 회의진행한 것을 보면 순서에 의해서 경찰국장도 나와서 이 의사진행의 촉진을 위해서 협력할 터인데 안하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 의회에서 위해주는 경찰에게 성의를 모르고 또 이해못하는 경찰 직원이 아닌가 저는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들여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행정에 대해서 과거 3 4개월전에 실적을 본다면 대개 괜찮았는데 어찌된 셈인지 아주 소홀한 태만해졌다 또 이것을 경찰에 연락을 하면은 경찰에서는 우리가 경찰행정과는 반대로 제가 이런 것을 하면 저사람부터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여기에서는 보안과장 나와 계시고 또 각서에 담당 책임자들이 나와계시니까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개 4 5일에 한번씩 오기가 드물 정도로 지금 청소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해서 이렇게 늦어지며 혹은 경비의 부족에서 오는 소치인지 혹은 차량의 대수가 감축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가 이 고지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특히 고지대는 혜택을 전연 못받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또 오물을 제거하는데 버리는 장소가 대단히 그 주변이 집단 거주지에서 인접한 장소 내지는 강바로 옆에다가 갖다가 버려서 이것을 각 방면으로 진정을 하고 또 청원을 하고 위생에 관련이 없는 먼 장소를 택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시경보안과장은 알고 계신지?……. 이것이 오늘 회의에 사회보건위원회의 문학우 의원께서 진정서 보고처리가 있었습니까만은 해나간다는 고마운 뜻은 보고로 인해서 알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달이 경과된 오늘날에도 아직 그것이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보안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보안과에서는 특히 이 중대한 시민의 위생을 염려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러한 처리장소를 물색하지 않으면 안될 책임이 보안과에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나온김에 언제쯤 이러한 위생의 염려가 제거될 수 있을 것인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명준; 다음은 조기항 의원 말씀하세요.

○조기항 의원; 이 청소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이렇게 지금 떠들어서 이것이 잘되게 하겠다는 그것이 안입니까?……. 이와같이 보안과장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1년을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개선이 없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야단이 났습니다.

겨우 그저 체면으로 일을 하는 정도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참말로 시민의 위생행정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성의를 없어요.

저는 확실이 없다고 보고 왜 없느냐? 지금 순전이 차고같은데 가볼 것 같으면 도저히 감독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연구를 하는 것인데요?……. 뭐 이거 안퍼갈려고 하는 이러한 지금이에요.

이제 좀 팔릴때에는 팔때가 없을까 해서 퍼가지만…….

이러니 이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변두리같은 데에서는 산에다가 묻읍니다.

이것이 비가 오며는 나와서 그 근방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취가 나서 곤란합니다.

소변을 길가에다가 퍼냅니다.

이렇게 지금 위생행정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시의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참말로 각자가 이것은……. 이것을 해야될 것이고 더욱이 이 조금만 자동차가 못갈때같으면 숫짜 가지도 않습니다.

의례이 150환하다가 그 이상은 안잡니다.

조금 가는 척하다가는 나 이거 못가겠습니다.

이러니 이것이 되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은 일반이 아무도 모르게 이러한 것을 내사해서 잘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경찰의 의무인데…….

하물며 경찰에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요.

이것은 적당이 어떠한 목적하에서 혹은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경찰이 모른다고 하니 이럴리가 있어요.

이것은 말이 안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서울시민 전체가 아는 것을 경찰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않되요. 정말 모르면 대통령한테라도 건의를 하고 서울시민의 위생에 대해서 너무나 등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명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질의에 대한 지금 발언요청이 벌써 아홉이나 되는데……. 이 우리가 본건에 대해서는 47의원이 전부 다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간이 없어요.

여기에 발언 요청한 순서대로 하다가 다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다음으로는…….

(「의사진행이요」 하는 이있음)

의사진행입니까? 말씀하세요.

○이행득 의원; 장시간을 피로를 잊으시고 하나하나를 질의 해서 과연 서울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진력하시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물론 우리가 질의라고 하니까 관계없다고 하지만은…….

아직 우리가 성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지 않고 회의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의장님 명확히 선포해주시기 바라고 의사진행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박명준; 지금 아마 의사진행하신 분 이 수를 모르고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26명입니다.

알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갑수 의원…….

○이갑수 의원; 보안과장님 더욱이 이 청소행정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무성의하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해놓고…….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과 같이……. 골목길을 잘 청소하기 위해서 또 한다고 해서 예산심의를 한 것인데…….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십시오.

이 고지대나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위생행정이 나쁘다는 비난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본청에서 청소차를 수리해서 각서에 있는 것을 종합해가지고 본청에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나간 처사같은 횡령사건이라든가 이러한 부정사건이 있는 것을 보안과장 나타난 사실을 아시는데……. 그 후에 이 문제를 각서에다가 수리를 맡겨라 하는 것을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확답한 것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지에 옮겨졌는지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각동내마다 소위 유지라고해서 혹은 높은 양반들인지 무슨 양반인지 모르지만……. 유지라고해서 그 집에 대한 쓰레기치는 사람이 직접 쳐다가 차에다가 실어주고 일반사람은 머리에다가 이고 나와서 차에 올리지만 유지들은 그런 식을 취했다는 것을 과거의 지나간 보안과장이 계실적에 본의원이 이것을 안된다고 이러한 처사는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하고……. 쓰레기치는 데에도 여기에 차별은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해서 이것은 즉각 폐지해라한 일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실지에 옮겨졌는지?……. 이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장 박명준; 다음은 박승목 의원에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승목 의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실천을 꼭 해주셔야 되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청소사업이 불공평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대개 고관되시는 분들은 교통이 좋은데에 사시는 분들이예요.

그분 집에 가면은 대개 청소 작업하는 도장찍는 데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변경해서 교통나쁜 산옥지대가 제일 혜택을 못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분노를 퍼다가 팔게 되면 교통이 나쁜데 가면은 시간이 걸리고 하루 두대해야 되겠는데 한차도 못하게 되니까 교통이 나쁜데는 수가 적지 않는 가하는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할때에 청소사업을 갖다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말고 어디까지나 서울시내의 위생사업인고로 되도록이면 위생이 어디가 제일 나쁘냐 저는 생각할 때에 이 높은 지대에 분노를 잘 안퍼가며는 그분들이 버릴데가 없어서 높은데 버려두니까 비가 오면 전부 밑으로 내려올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불편한 장소에다가 청소사업해가는 도장찍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제가 그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제 이웃에 어떤 고관이 계세요. 갔드니 한주일에 꼬박꼬박 찍는 것이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것을 산꼭데기에다가 갔다 놓은 것이 좋겠다 말씀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과장님은 물론 거기까지는 알지 못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해서 도장찍는 것을 갔다가 교통이 불편한데다가 갔다두고 책임있는 분들이 찾아

순회를 해서 감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박명준; 이제 다섯분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박수형 의원 질의해주세요.

○박수형 의원; 보안과장께 다섯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일개 경찰의 소행으로서 청소비중에서 970만환의 시비가 횡령되었는데 그 후에 재판관계 여러 가지는 지상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970만환 회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회수하고 있는지 이것을 질의하는 바입니다.

다음 4288년도 회계검사시에 지적한 바와 같이 차량 한대에 대해서 시세입을 9만환씩 되었는데 10월1일부터 3만환 올려서 12만환씩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회계검사시에 각 경찰서에 나가보았더니 이 3만환 증액을 10 11 12 3개월분이 각 경찰서에서 미수되어서 그 액수가 근천만환이상 미수되어 있는 것을 지금은 완전히 수납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번 회기때에 본 회의에서 통과된 대한비료공제조합연합회 대행권 문제는 지금은 어떠한 정도로서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인분을 처가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하게 되면은 제가 살고있는 종로6가 12번지 51호라는 이 지대는 낙산장이 있는 이 지대로서 대단히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시의원이라 그런지 대단히 우리 근방은 잘 처잡니다.

한데 거기에서 조금만 떨어진 지역은 도저히 안처간다 말이에요.

안처가나 내 자신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남보다 잘 처간다는 말은 할 수 없지만은 명색이 시의원이라고 해서 또박또박 시기가 되면 처가는 데를 같이 처갔으면 좋겠는데 그 인근지대는 도무지 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높아서 말씀이지요……. 내 의도는 그렇지 않는데 동민들한테 내 자신이 욕을 먹고 또한 경찰도 욕을 먹고하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어찌든지 계급여하를 막론하고 균형적으로 처가 주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고 하니 이것을 散漫的으로 칠 것이 아니라 가령 종로6가 12번지 51호 중심으로 박수형집 이외에 몇 집을 치면 한 추력이 된다 하는 것을 계획적으로 수자를 내가지고 이것이 10일에 한번오면 된다든가 보름에 한번오면 된다든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할 수 없는가 이것을 질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청소문제에 대해서 말씀은 9개 경찰서 산하에 있는 도로청소 인부문제입니다.

인부들이 가령 종로서라면 종로서가 20명이라 하게 되면은 실지로 나와서 비를 들고 일하는 사람은 그 20명 수자에 절반도 안되고 나머지는 판데에 가서 판일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서 단속하고 있는지 이 다섯가지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명준; 한가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성원이 미달될 우려가 있으니 될 수 있는대로 이석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부 발언을 하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아직 세분이 남았습니다.

간단히 말씀하세요.

김재순 의원

○김재순 의원; 보안과장께 좋은 방안하나 질의하려고 합니다.

분뇨수거 청소문제에 있어서 경찰국 자체가 하는 작업이 아니겠고 대행기관에 주어가지고 그 대행기관은 인부들에게 그것을 대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감독을 하려고 하면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상적으로 감독을 하려며는 이 방안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방안인고 하니 대행업자로 하여금 서달동안에 그 구민들이 과연 이 업자는 우리말 잘 듣고 잘 처가는 구나하는 호평이 있으면 그 다음 3개월 동안을 또 준다 말씀이에요.

그 대신에 3개월 동안에 아주 잘못한다는 그러한 여론이 나왔을 때에는 즉각에서 그 대행업자를 바꾸란 그 말이에요.

이 대행업자는 각 구별로 있기 때문에 대행업자를 바꾸어서……. 인부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에 이권화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시민의 요망대로 나오지 않을 때에 감독하는 경찰국에서는 그 대행업자들 바꿀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만일 그 수거 작업을 하는 성적이 나쁜대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꾸지 아니한다면 반드시 이권문제가 개재한다는 여론을 무시하지 못하고 업자가 잘못된 것을 그냥 두는구나 하는 이런 오해받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며는 충실치 못한 대행업자는 두 달 내지 석달 期割을 두어서 나쁘면 즉석에서 대행을 바꿀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과장; 청소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선 이 청소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다가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에 응해드리겠습니다.

이 청소행정에 있어가지고 요 전에 시의회에서 건의를 저의 오기 전에 이미 제출했더군요. 제출해서 이것을 본국에서 하지 말고 각서에 이관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 정식으로다가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10월10일날자로다가 전부 각 경찰서에 이것을 넘겨주었습니다.

본국에서 그동안 취급하는 것이 잘된 점도 있지만 그 동안에 사고도 나고 먼저 보안과장이 다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임해가지고 다 옮겨주었습니다.

넘겨준 후 본국으로 각서를 통해서 좀더 잘 노력하라고 저의가 여러 가지 지시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답변 말씀드리는 것이고 현재 여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본체로 전부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인 것인데 사실 저 자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방안을 세워가지고 다소라도 일반시민의 요구에 응하도록 이 청소작업을 하는 비난이 안가도록하고 이것이 제일 이해득실이 많이 있는 것이고 제일 시민이 불평을 느끼는 관계로 이것을 다시 잘해보겠다는 이런 생각하에서 제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그 고지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높은 지대에는 안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에만 다니고 또 그것은 권세나 있고 그 말성이 많은 이런곳에 자주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시정을 해자기고 골고루 수거작업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각 동회 각 경찰서에 가서 각 동회 동회장의 도장을 받아오라 그랬습니다.

만일 동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 통장 그 통장이 없을 경우에는 반장 전부 도장을 받아오라 그래야 사실 그 인분이라든가 전차를 갖다가 수거했다 하루에 몇 번 왕복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지만 어디갔다 왔다는 것으로는 고지 안듣기니 각 경찰서에서는 앞으로 반듯이 동회로다가 인분차라든가 진개차를 보낼 경우에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장 그렇지 않으면 통장 통장이 없을 경우에는 반장의 도장을 받아라 이렇게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한가지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선 여러 선생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사람이 쓰레기를 갖다가 방출하는 것이 3 이라고 잡고 있습니다.

인분은 3합를 잡고 있는데 이것을 현재 서울인구 148만8천6십2명인데 그 중에서 방출하는 그 인분을 볼 것 같으면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이 195만3명을 잡고 있는데 이 195만3명이라고 하면 하루에 300근씩 잡으면 32명 7천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개차 52대를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이 52대가 5회 7회 왕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차가 시에서 정해준 현재 이상의 차가 있는데 역시 기계니만큼 고장이나면 수리하는 차도 있고 현재 저희가 고치고 있는 것이 있고 중간에 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해서 이것은 시의회나 일반시민이 요구하는 이

러한 작업이 안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선에 넘겨준 그 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운행하는가 해가지고 직원을 동원시켜 경찰도 시켜보고 제 자신 직접 나가서 봅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내에 예산관계로 68대를 갖다가 배당해 주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160만 시민의 수거작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점을 시정감사를 통해서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68대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데도 하루에 다섯 번 일곱 번 왕복해야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기계니만큼 고장도 나고 중간가다가 쉬는 관계도 있습니다.

아까 어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구루마차라 할까 이것은 시에서 내준 것이 한대도 없습니다.

똥통에 대해서 아마 그 차는 내주셨고 구루마는 안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고지대에 갈적에 차가 못올라 갑니다.

중간에까지 가 가지고 높은 지대에 가니만큼 인부들도 성질이 나쁘지 않습니다.

제 자신이 똥통 일을 하니만큼 이 참 사람마다 성벽이 있는데 이것은 여간해서 보통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대개 이 똥을 묻히고서는 일하니만큼 이 사람들을 감독하는데에도 애로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두달전에 목아지를 잘라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한번 바로 잡아보겠다는 것이 제 욕망입니다.

그리고 일전에 여러 선생님께서 꾸중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잘해달라는 격려도 제가 받고해서 그래서 제 자신이 나가서 이것을 갖다가 좀 진두지휘해서 잘해보겠다는 그러한

생각하에 아침 일찍 저녁 늦게 퇴근할 때 나가보니 사실 여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은 참 정당한 말씀을 해주셨고 일반시민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있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대개 이러한 형편에 노여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하도록 제 자신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순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거기에 따라가지고 요 일전에 도동에서 이 인부들과 시민들 사이에 격투가 벌어졌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벌써 제가 이미 인부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몸을 떴고 될 수 있는대로 그 똥물은 옷을 입고 수거작업을 하더라도 너희가 시민을 위하여 일하느니만큼 친절 본위로 해라. 이 사람 자기 자신이 직접 나가 가지고 한번 수거하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삼고 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씩 나아지도록 제 자신이 노력을 하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가책이 있어 처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에 처분이 되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학우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똥통차를 개량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현재 저희가 많이 차를 고치고 있습니다.

개량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좀 시일을 주시면 전부 차를 완전히 고쳐가지고 앞으로 저희 애로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떼를 써서라도 전부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똥통문제를 말씀해요」 하는 이있음)

똥통입니까? 똥통관계는 이 똥통이 쭈그러트려 가지고 수거하는데 사실 한통이 아니라 제대로 할 것 같으면 한반을



갖다가 한통으로다가 처가지고 그 위에 돈을 다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제 자신 확인해가지고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차를 개량해가지고 지금 쓰레기차가 뒤에 문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텐트」를 치고 있는데 사실 떨어져서 그냥 차가 다니고 그러면 바람에 나부끼고 그래서 떨어지고해서요 일전에 저희가 지시해서 위생계장더러 앞으로 시내에 차가 가는데 바람에 안떨어지도록 하라 해가지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것을 노력하고 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부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지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자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현재 높은 지대에는 앞으로다가 그 시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주셔가지고 거기에는 「스리코타」나 그렇지 않으면 무슨 구루마라도 해가지고 올려주시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주려」을 가지고 다닙니까? 「추려」이 고지대에까지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부들이 계가나면 아까 사실 말씀대로 높은 지대에 안가는 일도 있고 해서 그래서 동장이나 통장 혹은 반장의 반장이 도장을 찍어오기 전에는 너희가 안 간걸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감사시에 처단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부 도장을 말도록 해 노았읍니다.

그리고 각 위생계장들이 나가서 실지 순찰함을 부처가지고 확인을 해보아라……. 하는 것을 지시를 했고 또 한가지는 각 파출소관구 경사한테 일러가지고 확인을 해보아라……. 그랬

입니다.

과연 간 것을 도장을 찍어 주었나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 파출소에서 명단을 두어가지고 거기에 왔다는 것으로 도장을 맡도록 이렇게 2중 3중으로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일선에서는 저의 본국에서 직접하는 것을 넘겨주어서 자기네 계획관계도 있고해서 원활히 못해나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조사하고 저의 계획대로 실천해가지고 선생님들의 말씀한테 응답하도록 해야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잘 안처간다고 말씀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각 동단위로다가 配事해서 도장을 맡어오도록 했으니까 지금 현재는 인분차를 늦어도 닷새에 한번이고 쓰레기차는 사흘에 한번씩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배차하게 시달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차차 나질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동대문 채석장 뒤에 공동변소를 갔다가 만들어 놓았는데 처가지 얹어 가지고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을 했는데 이것도 조사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변소관계가 나왔으니까 참고로 보고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공중변소가 104군데가 있습니다.

104군데가 있는데 인부 60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 일전에 남산과 기타 서너군데 가보았습니다.

인부 하나가 청소를 해놓고나서 딱 공중변소에 가는 동안에 금번 한데에 듭니다.

우리나라 시민이든지 이런 양반들이 그대로 청소한 거기에다가 누면 되는데 급하고 하니까 오줌똥에다가 누면 늘고 가장자리에다가 누어놓고……. 청소한 인부가 한 시간전에 다녀

간 것이 방금 표가 납니다.

이것이 소변누는 데에다가 이만한 덩어리가 김이 무럭무럭 나는 것이……. 수없이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시의회에서 적어도 공중변소를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60명을 배치해 놓으니까 한사람이 두군데를 나가니까 양쪽에 왔다갔다하면 시간만 흐르고 똥치다가 볼일 못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정감사를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맞도록 실질적으로 인원을 배치해주시면 저의가 여러 가지 형편도 피고 그 후에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주시면 저의가 얼마든지 직원을 징계한다든가 제 자신 책임을 지겠습니다.

현재 형태로는 부합안되는 현상이 구성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와가지고 두달밖에 안되어서 제대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두달동안에 제가 보고 경험한 바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되었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의도 노력을 해가지고 여러 선생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일선시민들의 불편을 제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것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섯째 인부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부10여명의 몫을 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善質은 아닙니다.

답답하니까 나와서 일하는 것이고 좋아서 나오는 것보다도 돈버리를 위해서 나온 이 사람들이 근성이 있기 때문에 이견 형편없습니다.

이래서 제 자신 사복을 입고서 요 일전에 취체를 해보니까

당신이 무엇이나 하면서 시비를 거는데 이것 과연 이것이 앞으로다가 영감네들 요구대로 될는지 일반시민의 요구하는 대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닥치는대로 이것을 전부 차단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일반시민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근성을 부릴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책없이 치도록 해서 딴 사람을 대치하도록 해야하겠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단속을 게을리지 않도록 해야하겠습니다.

구의원께서 말씀하신 지연이유 대개 인분차라든가 진개차를 늦게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앞으로 고쳐질 것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전부 동회에서 이 동장들의 도장을 맡고 반장들의 도장을 맡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지말을 앗하는 이상 앞으로 시정되어 나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장을 갔다가 일반인가 여에다가 설치해가지고 그 시민의 불편이 많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현재 용산관내에 하나 있습니다.

용산관내에 미군 진개장과 저의가 치는 쓰리기장이 있습니다.

두군데가 있는데 그 주민들이 과거 저이가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그것을 높이 만들은 지대에 「바라크」를 지어가지고 사는 주민입니다.

그리고 미군쓰레기장이 있는데 그 미군이 갔다버리는 것으로 말미아아 그 후에 종이라든가 그것을 주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인데 절반은 이것을 철거해달라고하고 절반은 이것을 노아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일전에 제 자신 나가서 조사해 본 결과 이것을

판데로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다가 인가옆에 있는 것은 될 수 있는대로 멀리 원거리로다가 이전하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분이 잘 수거 작업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말씀드린 것으로 하여금 계속 잘하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이갑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구루마관계 구루마는 현재 한대도 양주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회에서 좀 인분관계 구루마를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쓰레기 관계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각 서로다가 이관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저의가 감독권만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는 각서로다가 주어서 각서 실정에 맞는 수거작업을 하도록 각서에다가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유지라든가 권력있는 이들은 대개 인부자신들이 가서 수거작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차별적으로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많이 나졌을 것입니다.

앞으로……. 조사를 안해보았습니까마는 알아보아 가지고 그러한 차별관계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시정하도록해야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작업의 불공평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앞으로 산악지대라든가 이런데에 순찰단을 두고 또 저의가 그렇게 지시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그 동장이라든가 반장들의 도장을 받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로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잘 안되는 경우에는 다시 저의가 고치도록하고 제 자신 나가 가지고 지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생계사건 이후에 그 청소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현재 그 본인들도 변상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하는데 피고들의 분담관계로다가 수자를 만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말을 못보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얼마라고 하는 것은 되어 있지만 누가 얼마 누가 얼마라고 하는 것은 판단이 않나있기 때문에 요것은 좀더 저의가 확실한 것을 알아가지고 전부 받아들리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본인들도 내야겠다고 하고 우리 자신들도 받어서 이것을 내야겠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전체적으로 내느냐? 그 아래로다가 전부해서 피고들이 분담해서 내는데 액수가 결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요것을 절충해가지고 조속히 결말을 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각서의 수납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요것도 요일전에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제대로 안되어있는데다가 있습니다.

요것은 전부 받아들리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만은 아직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요것도 결과를 확인후에 다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째에 가서 중앙비료공사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요것은 아직 총괄적으로다가 안되어 있습니다.

각 서에서 실시는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넷째에가서 고지대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보고 말씀 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도로인부관계는 이것은 현재 서울시내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160여명이 있습니다.

이 인원관계도 전부 동원되어 있는데 요 사이는 길을 쓸어도 낙엽관계로 해서 방금 쓸어도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이 인원이 전부 나와서 일을 해도 어느 구석에 가서 박혀있는지 알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것도 저의가 요사이 제일 골치를 앓고 있는데 인부관계도 각 선생님들이 아침저녁 다니시니까 잘 아실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시정감사때 라든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많은 인원이 못되니까 앞으로 100명정도 늘이셔야 하겠습니다.

이래야 제대로 되지 저의가 지금 암만 아침 저녁해놓고 낮에 인부가 청소를 해노아도 우리 시민들이 인식을 가지고 제대로 이것을 갖다가 깨끗이 한다든가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자신도 어디까지나 사복을 입고 나갈적에 주머니에라도 종이가 있을 것 같으면 금방 버리고 가정주부들도 쓰레기 같은 것을 길바닥에다 버리고 또 공중위생관념이 없어서 굉장히 저의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도 더 좀 앞으로 살피셔가지고 인원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부관계 적게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잘 조사해야겠습니다.

제가 두달동안에 느낀 것은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

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통계를 내가지고 요다음 시정감사오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라든가 분노관계 수거작업에 있어가지고 대행업자가 성적이 나쁘면 3개월에 한번씩 대체시킨다고 하는데 이것 각 서에다가 책임지우고 조사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을 토대로해서 일반시민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는 것을 알아서 힘있게 일할테니 제가 말씀한 고충을 이해하셔서 요 다음 예산편성때는 예산을 많이 주시고 그 다음 잘못되는 것은 어느 때든지 꾸중하시면 와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동석 의원; 요망으로 잠깐 발언을 할까 합니다.

실질적인 관계도 본 의원이 지난 약1년으로 보아서 얘기하면 아침 다섯시경으로 해서 이 분노차가 와가지고 분노차가 계속해서 분노를 치라고 내성으로 「분노를 치소」 「분노를 치소」 하기 때문에 여간 시끄럽지 않은데 발성도 필요합니 다만은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소동 아닌 소동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꽤 소란합니다.

제가 이 소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체시민의 요망으로 들어주시고 음성으로 이 신호를 하지마시고 종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신호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50대면 50대 100대가 구역단위로 풀려가지고 와서 하는데 한 대의 담당구역에 100명의 주민이 있다면 100명에게 시끄럽게 되지 않나해서 종으로 한다든지 다른 장치로 해서 신호하는 방식을 갈아주셨으면 하는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강을순 의원; 이제 질의하실 분이 더 계시면 제가 종결안 하고 안계신줄 알고 종결할라고 합니다.

종결동의하기 전에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운운은 말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안되요 일안됩니다」 하는 이있음)

그럼 오늘 이것이 처리 안됩니다.

그걸 부디 따지고 넘어간다면 이 사람도 종결동의 못하겠습니다.

이해하십시오. 끝나는 이 찰라입니다.

다른 분이 질의요청을 했다고 하면 내일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되겠지만 종결단계가 왔어요…….

(「의사진행이요 안됩니다」 하는 이있음)

그렇다면 성안 안하겠습니다.

○이갑수 의원; 성안이 안되면 종결동의해서 표결에 부칠 수 없습니다.

이대로 산회하고 내일 종결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 종결선언해 주세요.

○의장 박명준; 본 건에 대해서는 장시간 충분히 되었다고 해서 일로서 본건은 종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깐 내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긴급동의 올라온 중에 8건중에 4건만 처리되었습니다.

나머지 안건을 내일 상정하고 그 외에 5건이 내일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일로서 산회합니다.

(18시 00분 산회)